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3:30~17:30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31층)

주최 |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제 1 부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	3
좌장 : 성운숙 센터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발표	5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실천 발표에 대한 토론	47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일견(一見)에 대한 토론	53
박교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학교혁신과 회복적생활교육의 만남에 대한 토론	61
고일석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청)	
제 2 부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69
좌장 : 유형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따뜻한 봉황 회복적 학교 만들기 발표	71
오세연 교사 (김해봉황초등학교)	
관계 회복으로 행복한 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사례) 발표	89
최성민 교사 (평택성동초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충북 운영사례 발표	101
고명자 연구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개최 계획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 목적

- 학생 간 관계회복 집중 및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제도 개선 관련 정책 방향 모색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 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3:30~17:3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31층)
- 대 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담당교원 및 희망교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
- 주최 / 주관 :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주요 내용

- (제 1부)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
- (제 2부)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 세부일정은 '참고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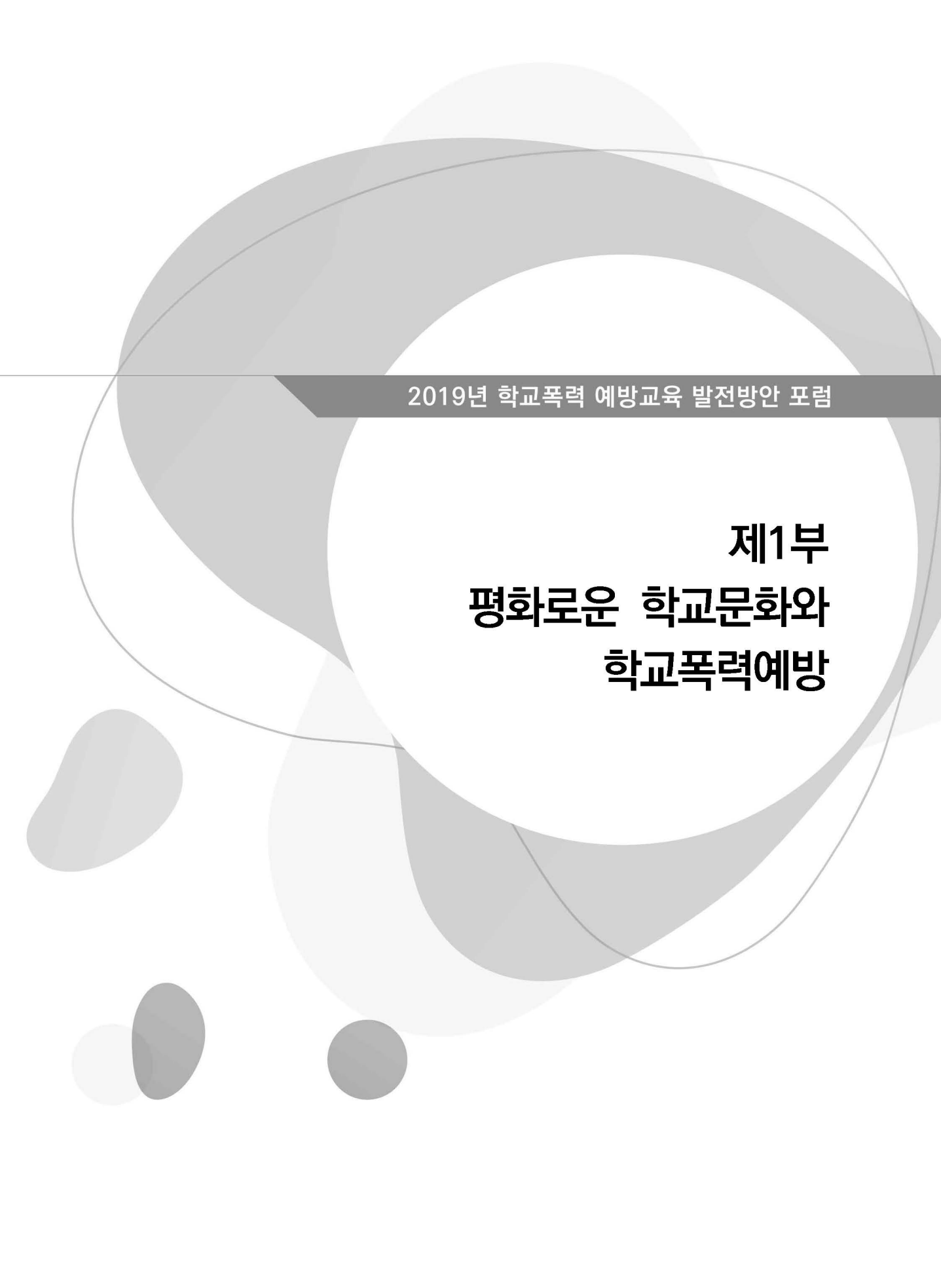
참고 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세부 일정

사회 : 양미석 부연구위원(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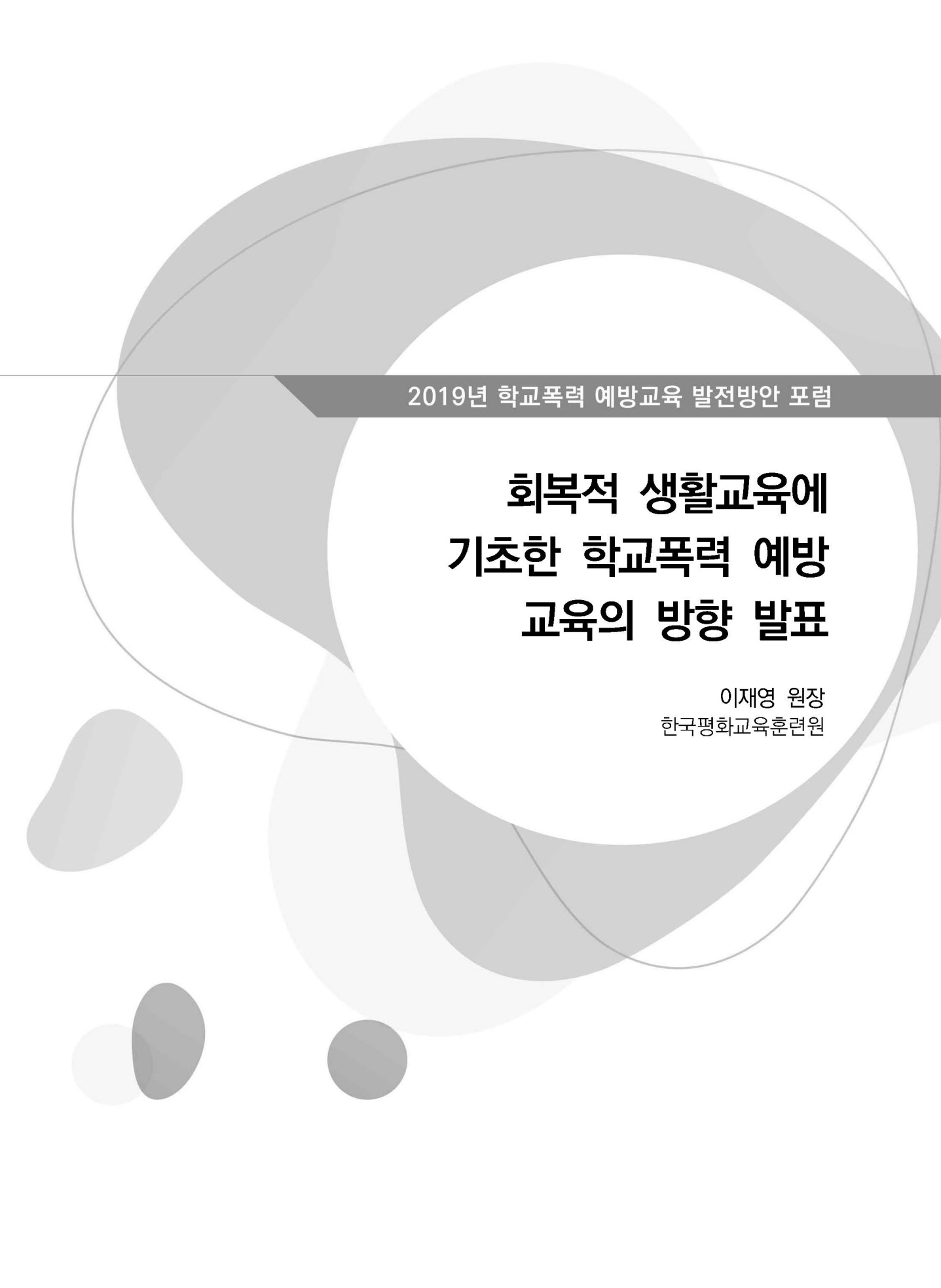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30	-	등록 및 안내	
13:30~13:50	20′	개회 및 인사말	환영사 : 원용연 과장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인사말 : 송병국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1 부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	좌장 : 성윤숙 센터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13:50~15:05	30′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발표 :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45′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토론	토론 :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토론 : 박교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토론 : 고일석 장학사 (전라남도 교육청)
15:05~15:15	10′	휴 식	
		제 2 부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좌장 : 유형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15:15~16:45	30′	회복적 생활교육 초등학교 운영사례 : 경상남도	발표 : 오세연 교사 (김해 봉황초등학교)
	30′	회복적 생활교육 초등학교 운영사례 : 경기도	발표 : 최성민 교사 (평택 성동초등학교)
	30′	회복적 생활교육 중·고등학교 운영사례 : 충청북도	발표 : 고명자 연구사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16:45~17:15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15~17:30	15′	정리 및 폐회	

※ 상기 세부일정은 당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제1부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발표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실천

이 재 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들어가기

소수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점차 확산되어 가면서 이제는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에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생활지도의 새로운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에게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존의 전통적 생활지도 방법을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 또한 누구에는 교육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 또 누군가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대안으로, 누군가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관계성에 대한 무엇으로 이해한다. 원론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이 모든 이해가 통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녹아 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고민을 담아내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영역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원래 회복적 생활교육은 사법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던 회복적 정의 실천이 교육영역으로 확산되어 적용된 '파생상품'이다. 1974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회복적 정의 운동이 점차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소년 사건을 다루는 혁신적 모델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¹⁾. 이런 움직임은 결국 1989년 뉴질랜드 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Family Group Conference'(가족 자유험의회)라는 사법절차 내 제도로 발전하였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실험이 점차 큰

1)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미라 사건(Elmira Case)을 계기로 Mennonite Central Committee(MCC) 기관에 의해 회복적 정의 첫 실험이 시작되었다.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대장간 2012 참고.

호응을 나타내면서 이웃나라 호주에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교육청 관계자였던 마가릿 소스본(Margaret Thorsborne)²⁾에 의해 학교 내 적용이 시도된 것은 1994년이다. 2000년 이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은 문제학생을 다루는 생활지도의 새로운 접근을 넘어 평화로운 학교 생태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사회인을 교육하는 생활교육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뿌리가 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생활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실천영역을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육현장에 빠른 확산을 넘어 좀 더 깊게 뿌리내리고 교사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학교문화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학교에서 생활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미래세대에게 갈등을 힘과 법을 넘어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접근하는 문화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1. 회복적 정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원래 사범영역에서 시작된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사범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 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 정의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범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범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진 진정한 발명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³⁾ 라고 말하고 있다.

2) 마가릿 소스본 & 페타 블러드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권현미, 조일현 역. 애듀니티. 2017

3) Eduardo Barajas, "Speak Out! Community Justice: Bad Ways of Promoting a Good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던 사회의 단계이던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지고 느껴질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물(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 데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여자로 지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

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되 관계의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 보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도표는 응보적 정의 개념과 회복적 정의 개념 두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4)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116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 비교〉⁵⁾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주의 피해를 가해자에 대한 피해로 균형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손해배상 결여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잘못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독점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핵심사항이 아님 절차가 개별적, 분리 조장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해결 배상과 원상회복을 통한 균형의식 죄의 대가는 빠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피해자 요구 중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일반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중심 절차의 목적은 화해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최초의 시도 : 캐나다 엘미라 사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소년사법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형사제재 위주의 사법절차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5)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241-242

있다.⁶⁾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소수의 메노나이트 교회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훗날 첫 번째 회복적 정의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마이라 사건은 이 후 수많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VOMP/VORP)로 발전하게 된다.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턴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 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십대 용의자들을 데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담당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 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게 최종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턴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만으로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심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년범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장 잘 실천된 곳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가족자율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가족회합 모델에서는 19세 이하

6)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바람.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족회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회합의 핵심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가족회합의 진행은 전문조정 훈련을 받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 소년지원과의 직원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가족회합을 통해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 자율 협의회(FGC)는 형사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

2. 회복적 정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응보적 정의가 생산한 모순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사법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로운 해결(수사와 재판)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손실)와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리는 그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또 다른 피해나 고통을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되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른다. 처벌을 통한 균형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정적 방식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와 다르게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식 재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의문과 만족은 소외되고 사법기관(국가)과 가해자 사이에서 죄와 처벌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처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서 법원에 다녀와서 화해했다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료가 필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재범률 증가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적 한계를 갖지만, 그 외에도 소송의 남발과 소송기간의 증대 등으로 사법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조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당사자가 아닌 법률전문가 주도의 문제해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도 무시 할 수 없다. 결국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리 소송이 남발되는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수감시설의 문제점은 또 어떠한가?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감시설에서 그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난다. 즉 수감자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기 쉽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생겨나면서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장애요소를 낳는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다시 범죄에 그늘에 맴도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예산의 사용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 가해자, 지역 공동체의 요구

회복적 정의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당사자의 요구(needs)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처벌로 이뤄지는 결정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요구
• 잘못된 행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다. •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 •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고 싶다. •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 가능한 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 할 수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 사람들이 비난 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 • 공개적이지 않을 지라도 주변의 도움과 신뢰를 받고 싶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회복적 정의에서 중시여기는 요구(needs)는 비단 그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영향을 받는 주변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넓게는 사회 전체를 포함한다. 범죄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필요를 넓힌다. 안전은 인간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면 그 해결의 주체에 지역 사회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에게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가해자 자체를 비난만 하고 격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요구를 현 사법제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며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처벌을 덜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끼게 만드는 제도는 결코 균형 잡힌 정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사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요구는 책임을 낳지만 처벌이 반드시 요구를 채운다는 전제는 많은 모순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표의 변화 - 처벌에서 회복으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restoration)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 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분쟁봉합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 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매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 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3.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사범의 범위를 넘어 교육현장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가치들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소위 회복적 정의의 3원칙⁷⁾이라고 할 수 있는 존중, 책임, 회복을 생활지도 영역과 교실 교육환경을 이루는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라는 기능적 접근을 넘어 일상의 학교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문화를 형성에 더 근본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급운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을 회복적 정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활지도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의 관계설정과 학교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을 의미한다.⁸⁾ 즉 회복적 사범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적 관점에서 대응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적 교육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30여 년간 미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가로 살아온 로레인 교수는 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회복적 정의 가치에 기초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실천 원칙으로 다음 7가지⁹⁾를 제시하고 있다.

1.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2.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할 것

7) 3Rs로 불리는 회복적 정의 철학의 3대 핵심 요소 Respect, Responsibility, Restoration

8) 이재영, 정용진 [회복적 정의 이해와 실천 - 회복적 정의 워크숍 통합과정1 워크북] 퍼스빌딩, 2019

9) 로레인 스투츠만 암스투츠 & 주디 H. 물렛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이재영, 정용진 역, KAP, 2011 P44~48

3. 단순히 규칙을 어긴 부분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4.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
5.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활용할 것
6.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
7. 자신이 일으킨 피해를 이해하고 스스로 만드는 책임감을 키울 것

결국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고 숙제인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문제 상황’을 통제와 처벌의 순간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에 있어 학급의 일상에서 무수히 흘러보내고 있는 갈등과 충돌의 시간들이 삶의 생활교육의 기회라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관점 전환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으로써의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기능 중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분야가 존재한다. 하나는 수업을 통해 이뤄지는 교과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지도를 통해서 이뤄지는 생활교육이다. 이 두 교육 분야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양대 중심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학교 교육은 수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심되어 왔다. 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목표 앞에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마저도 수업과 성적이라고 하는 결과 생산에 몰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생활지도는 학교의 가장 우선순위인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통제하여 수업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과정 정도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결국 교과교육을 위해 생활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교육의 부차적 분야로 남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두 단어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선 ‘회복적’이란 단어가 갖는 목표의 변화이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잘못을 바로 잡는 과정과 결과로써’ 처벌을 과녁에 놓고 있었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는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관계의 회복, 피해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생활교육의 핵심은 '존중'을 가르치고 실행되게 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습공동체는 학생과 교사사이, 학생과 학생사이, 심지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상호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지도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집중되는 구조라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처음 학기를 시작하는 첫 만남의 단계부터 이미 생활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생활교육'이란 단어가 갖는 상징성이다. 생활지도라는 말에는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나 제도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방향성을 의미하기 쉽다. 결국 순종적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교육 패러다임일 때 작동되던 용어가 요즘 같이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따라서 생활교육은 생활지도를 수업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한 양대 축의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결국 생활교육은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인가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어떤 책임성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상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교사는 가르치는(teaching) 능력이 아니라 진행하는(facilitating) 능력이 필요한 시기를 살게 될 것이다. 인지능력은 인공지능(AI)과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대신 높여줄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정보의 취득이 빨라지는 세대에 교육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협업과 협동,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 스스로 그러나 함께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지휘자와 같은 능력이 된다. 생활교육이 관계와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라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발전해야 할 교육은 생활교육 영역이다. 그러나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이나 교육과정에 생활교육 영역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사의 업무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대두되어온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 체계적 대응능력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라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연수과정에 생활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철학,

그리고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생활교육이 수업을 통한 교과교육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교사가 늘어날 때 회복적 교육환경도 생겨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과정

한국에서 처음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개념이 소개된 것은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¹⁰⁾이란 책이 번역출판 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는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보다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가정법원 소년부와 같은 사법영역에서 회복적 정의(사법)가 실천되고 있었다. 이 책의 출판과 함께 2011년 여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이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에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에 참여한 기독교사 단체연합체인 ‘좋은교사운동¹¹⁾’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학교현장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논의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제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좋은교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실천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들어오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사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연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회복적 생활교육은 경기도 관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넓게 확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생인권조례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새로운 교육수장들의 관심 속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연수를 받은 소수의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를 꾸려 동료교사들에게 전파하면서 시작된 자생적 운동이 점진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지금은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뿐만 아니라, 교사 강사단, 조정지원단, 마을강사, 모델학교 등의 다양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10) 로레인 스투츠만 암스트루츠 & 주디 H. 몰렛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이재영, 정용진 역, KAP, 2011

11) 이후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회복적생활교육연구소(박숙영 소장)를 출범하여 교사들을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관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전문 그룹을 양성하는 장기과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 지역에 자생적 또는 교육청에 의해 만들어진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가 조직되어 각 연구회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비록 연구회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의 수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연구회 단위별 교육과 실천나눔을 통한 성장은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 마을강사, 조정지원단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체계 마련 등도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의 필요에 맞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종합적인 가이드 맵이 등장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서클이나 공동체성 훈련 등과 같은 파편적 프로그램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개별적 프로그램의 소개를 넘어 회복적 학교 만들기 같은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로 확대 발전 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회복적 생활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개별 교사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이뤄 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교의 다양한 실험들을 축적하고 자료화해서 학교 생태계에 맞는 회복적 생활교육 가이드 맵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도 교육영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 마을 등을 아우르는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춰 진행될 때 더 지속가능한 혁신 운동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4. 예방적 측면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영역은 교실이다. 학생들의 일상의 시간이 가장 많이 공유되는 공간인 교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공간이 된다면 수업과 학교생활은 자연스럽게 안정화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학급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담임교사들의 노력과 지원체제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시작점이다. 따라서 담임과 학년을 지원하는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가. 회복적 질문 활용하기

교육의 힘은 질문의 힘이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일상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함께 일상을 지내는 교실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교사가 지금까지 던져온 질문의 방향은 응보적 정의 방향일 확률이 높다. 아래의 표는 응보적 관점의 질문과 회복적 질문의 관점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응보적 회복적 질문비교¹²⁾〉

응보적 관점	관점	회복적 관점
“누가 잘못된 사람인가?” “어떤 잘못(규칙)을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질문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피해가 생겼는가?”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가?”

이처럼 매우 작은 영역 같지만 질문의 틀을 응보적에서 회복적 관점으로 바뀌어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큰 관점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된다. 응보적 질문은 잘못을 한 학생에 대한 낙인이나 처벌로써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준다. 반면에 회복적 질문은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잘못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이 일으킨 피해와 영향을 생각하게 만든다. 본인이 일으킨 피해와 영향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응보적 질문은 잘못된 행위와 잘못을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 쉽고 반발과 자기 합리화에 더 집중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반면, 회복적 질문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발생시킨 피해와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게 돕는다. 결국 교사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첫 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일상의 실천일 수 있다.

12)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117

회복적 질문에 기초하여 성찰문(반성문)을 바꿔 만들어 본 것이 [회복적 성찰문]이다. 회복적 성찰문은 백지가 아닌 회복적 질문이 들어간 성찰문 작성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상황,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이나 피해, 스스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자숙의 시간을 제공한다. 회복적 성찰문이 바로 행동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사고와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회복적 성찰문¹³⁾

담임교사	부모님	학년부장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 행동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들)라고 생각하나요? (개인, 학교, 가정 차원에서)		
3.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4. 선생님과 주변(학부모 등)에서 본인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이번 일을 통해 배운점은 무엇인가요?		
2019년 월 일		
학번 :		성명 :

13) 이재영, 정용진 [회복적 정의 이해와 실천 - 회복적 정의 워크숍 통합과정1 워크북] 퍼스빌딩, 2019. p.46

나. 서클을 통한 학급운영

서클은 원으로 둘러앉아 수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북미 원주민 전통에서 나온 공동체 대화방식이다. 원형대화라고 불리는 서클을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심지어 범죄와 같은 침해와 책임에 대한 결정도 마을주민들과 함께 이뤄왔던 전통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을 뜻한다. 서클이 갖는 특성인 수평성, 공동체, 자율, 존중 등이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공동체에 유의미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이를 학급에 적용한 것이 학급공동체 서클, 문제해결 서클 같은 방식의 서클이다.

새 학기 첫날 만남부터 시작하여 학생들과 교사, 학생들 사이에 관계를 높이고 공동체성을 고취시키는 공동체 서클은 그 자체로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관계를 높이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갈등 자체를 학급 공동체에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관계를 높이는 서클과 같은 시간이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시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서클들 - 공동체 서클, 신뢰서클, 문제해결서클, 회복적 서클, 치유서클 등-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연결성을 인식하고 갈등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서클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쟁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위 방관자라고 볼 수 있는 반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은 처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담이나 보호로써 조치를 받는 경험을 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해결 서클은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고 학급이 준비되어 있는 전제 속에) 어떤 사건이 당자가 뿐만 아니라 학급공동체 모두에게 끼친 영향과 관계적 어려움에 집중한다. 이는 직면이라는 쉽지 않은 경험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직면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신비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을 제어하는 방식의 생활지도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감정, 영향 그리고 역할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 자체를 문제해결 절차가 되도록 한다.

서클은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책임과 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성숙하고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경험적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또래압력의 건강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압력이 배제와 낙인을 향하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향해 작동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과 공동체의 역할을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서클이다. 따라서 서클은 학급을 통제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활교육의 내용이 된다. 서클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학급운동을 기해하는 것은 어쩌면 부차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서클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교사들이 서클의 효과를 넘어 수업과 연결하고 생활교육을 학교의 중요한 교육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 규칙을 넘어 존중의 약속으로

모든 학교는 규칙과 규율을 갖는다. 그리고 이 규율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문화가 발전해가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규율은 점차 타인화되고 일상의 행동에 순수한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게 된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규율을 통한 통제가 더 쉽게 작동되고 공동체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나 제도가 요구되어 진다.

존중의 약속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주어지는 규율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존중을 느끼는 개인 간의 바운더리(영역)와 전체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결과이다.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라는 주체와 관점을 달리하는 질문을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 존중의 약속이다. ‘나는’ 이란 표현이 ‘우리’를 대신하고 ‘할 것인가’에서 ‘느끼는가’로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학급 또는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학생들은 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교사는 동료교사들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선생님은 학부모가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학부모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존중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존중의 약속 질문들을 가지고 학급공동체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함께 존중하기로 한 약속의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시간 자체가 이미 학급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1,2학기 시작단계에서 존중의 약속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고 학기가 마치는 시점에서 학급 존중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서클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평화감수성 교육과 공동체성 훈련 일상화

평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곧 통일 교육으로 인식되어 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속한 학급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배우는 교육이 평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간디와 비폭력 사상이나 유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학급에서 벌어지는 왕따문화 학교폭력 문제, 경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평화적 대응능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쟁적 입시제도와 문화속에서 학업성취라는 스트레스 속에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교육내용이다. 평화로운 공존, 존중의 문화, 상호책임성, 협업과 협동, 갈등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행동을 학교에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된 사회문화 속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다음세대에게 학교는 공동체성을 가르쳐야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공동체성이 낮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권리의 충돌 현상이다. '나의 권리(my right)'를 찾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만들어 놓은 학교는 결국 민원의 폭주, 학교 내 갈등의 사법화, 보신중의, 관계성 저하, 관계의 불신을 낳기 쉬어진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권한과

동시에 강조돼야 할 영역이 공동체성이다. 나의 권한도 공동체의 존재속에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추구하는 생활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어찌보면 가장 중용한 목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에 제시한 서클을 통한 학급운영도 중요하고, 학급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급공동체 훈련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제시되고 경험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배워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급, 특히 소위 위기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답임)교사도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한명으로 학급공동체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져오는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복적 대화모임 등을 통해 불거졌던 갈등을 해결해 가는 학급이라면 반드시 평화감수성 훈련이나 공동체성 훈련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간의 대화와 약속을 넘어 학급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방향성이다.

마. 학년별 생활교육 운영체계 확립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급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전담기구(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학년중심 생활교육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로 대표교사(학년부장)와 회복적 생활교육 코디를 지정하고 학년에 맞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이 교사들이 학년별 담임교사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상의 생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수업과 마찬가지로 생활지도는 교사 개인의 고유영역이다. 하지만 개별 교사 개인에게 생활지도의 모든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처리가 아닌 일상의 생활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을 넘어 학년별 생활교육 체계를 통해 지원과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교권침해 같은 사안이나 집단 대 집단 간의 갈등의 경우 교사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부모 민원문제도 교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응해 나가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트려 결과적으로는 학급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제 학년별 생활교육 운영체제를 통해 새학기 시작 전부터 학년별 생활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을 각자가 아닌 학년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교사의 경우 학년부장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코디 교사의 도움을 통해 공동체 서클이나 공동체성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생활교육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생활지도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책임이 개인 교사의 역량에만 달려 있을 수는 없다. 교사공동체 특히 학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생활교육 방향과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생활교육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교사공동체의 회복 없이 학교공동체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회복적 생활교육도 발전해가기 쉽지 않다. 교사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높은 학교가 학생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학교의 리더쉽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먼저 생겨나야 하고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인 제도적 접근을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시제가 미래 이듯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생활지도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5.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

점차 복잡해지고 사법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위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이 하루속히 일반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그 이후에 과정에서 기존의 응보적 절차나 접근을 대치할 수 있는 회복적 접근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활용

일선 학교에서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의 전문 조정자에게 의뢰하여 [회복적 대화모임] 또는 [문제해결 서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당사자들에게 의한 갈등이 심화되거나 학교범위를 벗어나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양측 가족,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대결과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간의 직접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훈련된 조정자(교사 또는 외부자원)를 통한 당사자간 대화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문제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되기 이전에 학교단계나 지역교육청 단계에서 개인 간 학교 간 비밀이 보장되는 대화모임으로 의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계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 대응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당장 실현가능한 옵션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향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자체해결제여지가 열린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어떤 처벌을 결정하는 기구보다 관계회복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내 사건을 초기에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로 문제해결이 시도되도록 돕고 모니터링하는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 대화가 시도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 대화모임을 이끌 수 있는 조정자, 진행자 훈련이 된 자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나. 처벌 전후에 건강한 복귀를 위한 공동체 서클의 활용

학교가 학교의 교칙이나 처벌로만 학생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 내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그 이유는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학교의 처벌명령이 실제로 이를 수행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 또는 학교 공동체 전체에게 발전적 방향으로 접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인식이나 여론 상 처벌을 약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음으로 기존의 처벌조항을 유지하더라도 처벌 이후 교실로 복귀하기 전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공유하고 새로운 약속을 점검하는 복귀 서클이 필요하다, 서클의 구성원은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과 그 보호자, 담임 교사, 관리자(교감, 학생부장), 학급대표, 진행자 등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클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좀 더 직접적이고 자발적 형태로 책임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나누고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임의 목적은 처벌의 효과성 확인이나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자세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즉 모든 서클 참가자들도 함께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처벌과 낙인현상으로 남는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다. 관리자의 능력으로써의 갈등해결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조사내용과 학폭위 결과 등이 보고된다. 결국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의 잘못으로 비쳐지기 쉽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상부기관에 학교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하는 것은 관리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신에게 책임소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마냥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순진한 관리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는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의 관리자가 가져야 할 많은 능력들 가운데 갈등해결 능력이야 말로 가장 높이 인정받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다. 학교폭력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음성적으로 풀려고 하거나 학교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른 처리만을 강조해온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기 쉽다. 이제 사회가 관리자에게 문제가 생하지 않는 것만 고과반영의 유일한 잣대로 여기지 말고 갈등관리, 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표출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 학생들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및 또래조정 프로그램 시행

학교폭력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은 예방적 접근이다. 이를 위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에 이르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평화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구성원간의 분쟁임으로 일이 더욱 어렵고 복잡

해지기 쉽다. 따라서 사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 측면에서 분노조절, 의사소통 훈련, 평화감수성 훈련, 문제해결능력교육, 조정과 진행훈련 등 다양한 [갈등해결교육] 또는 [평화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선배가 후배의 문제를 돕고 또래가 서로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학교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접한 교사들 가운데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자신들이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경우 어떻게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문조정기관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이해가 있어야 학교폭력 발생이 생길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간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미리 예방될 수 있고,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

마. 조정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

외부의 조정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나 교육단체 내부적으로 갈등해결 능력과 조정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 중에서 조정위원을 선발하고 그 조정위원들이 전문조정 훈련을 받아 대화모임과 같은 조정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면 학교의 문제를 구태여 외부로 돌리는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전북교육청에서 일부 시도하고 있는 조정지원단(조정자문단) 같이 외부 지역사회 자원들을 조정훈련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정자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지역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관리자 또는 담당교사를 위한 갈등해결 및 조정훈련 과정을 개설한다면 학교 내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주변의 NGO, 종교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과 이해에서 접근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역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교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6.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의 사례

가. 회복적 생활교육 집중학교

경상남도 김해에 한 초등학교가 3년동안 회복적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 - 교사, 학생, 학부모 -를 위한 맞춤형 연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교사동아리운영, 또래조정반운영, 학부모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년별 생활교육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욱이 몇몇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본인이 이해한 회복적 정의와 생활교육의 내용을 접목하고 있고 학급운영에 서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활용

현재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법률지식 전달이나, 사고치면 사법처리된다는 협박성 교육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두 시간의 짧은 교육으로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식을 이해하고 체득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학급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행동의 문제를 다룰때 있어 필요한 관점의 전환이나 회복적 학급운영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

과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의 문제를 공동체 회복의 관점으로 풀기위해 자체적으로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란 기구를 새롭게 만들고 운영한 적이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대처자취위원회나 선도, 징계 위원회

기능과 이미지로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과정이나 결과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내의 갈등의 문제를 처벌위주의 결론보다는 대화를 통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회복되도록 시도하는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 회복적 학생생활교육부

인천의 한 중학교는 학생인권부의 이름을 (회복적)생활교육부로 바꾸고 그 기능도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 공동체 참여라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해 왔다. 물론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이해와 전문성, 학부모 동의, 학생 인권평화의식 향상이라는 쉽지 않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 갖는 가능성과 상징성을 높이 사야 한다.

마.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현재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사 연수와 학부모 연수에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은 매우 높은 만족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의 한계를 가장 적절히 보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학부모 연구모임 등의 현상을 볼 때 회복적 생활교육이 단지 학교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정과 마을의 변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이다.

바. 학부모 이해와 동의 필요성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학교의 혁신과 변화가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될 학부모들이 학교와 협력적

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스템과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학내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화로 풀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학교의 문제가 외부로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문제해결이 진행될지에 대한 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교사의 분쟁해결 방식과 원칙에 대한 이해와 동의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뤄지는 것이 그나마 더 큰 갈등의 증폭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사. 회복적 마을/도시 만들기

영국의 헐시티(Hull City)와 같이 도시의 행정, 사법, 교육의 전반적 운영방향이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도시를 말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교와 교육청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혁신지구 사업 내의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 - 8개 도시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 강사 양성이나 남양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 (회복적 마을, 회복적 학교, 회복적 사법) 등에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만의 노력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평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을주민들의 자원과 회복적 사법을 추구하는 사법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회복적 도시라는 큰 틀 안에서 학교도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7. 2019년 학폭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2019년 1월 29일 한참동안 예고해왔던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를 보면 다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 학교자체 해결 권한부여 2) 학교폭력 처분결과 생활기록부 기재요건 완화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등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을위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이후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든 핵심 정책들이기에 지속적으로 수정

요구가 많았던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 이 부분이 다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 번째인 ‘학교자체해결 권한부여’는 그 방향성에서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자체적 접근이나 해결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권이 박탈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개입하려는 노력보다는 전담기구로 넘기는 것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 중에 수업만이 교육은 아니다. 생활지도를 통해 이뤄지는 생활교육도 다음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게는 중요한 교육영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로 그 역할이 넘어가고 집중되면서 교사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되어 버렸다. 또한 자치위의 일방적 처분 결정을 분쟁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학교는 재심과 행정소송 등에 시달리는 폐단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교사들의 에너지를 비교육적인 분야에 쏟아야 하는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법화라는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풀어가는 권한을 다시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학교를 교육기관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관건은 학교자체해결을 위한 교육적 해결제도 도입이라는 방안이 과연 어떤 형태여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이 성격문제이다. (뒷부분 참조)

두 번째 개선안인 ‘학교폭력 처분결과 생활기록부 기재요건 완화’ 조치이다. 사실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미래에 해당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반헌법적 요소가 다분했다. 이 정책은 일반적 법상식인 한 가지 죄로 두 번의 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교육영역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사이에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빚게 만들었다. 결국 탄생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결하는 구도가 확산되는 슬픈 현실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이번 완화조치는 당연히 환영

받아야 한다. 다만, 교내 선도형 조치인 1-3호 처분결과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소를 갖게 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4호, 5호 처분 결정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처분결과를 낮추거나 번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 뻔하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불합리한 정책을 완화를 넘어 서서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사들을 민원과 소송대응 업무로부터 구해줘야 한다. 이제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이다.

세 번째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부분이다. 개별학교에게 자치위 교육청 이관 이슈는 숙원사업과 같은 것이었다. 자치위 개최 기준의 모호성, 처분 결과에 대한 책임소지 문제, 학교문제의 소송화, 학부모 민원 증가, 결과에 불만인 학생들의 생활지도 어려움, 자치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자치위구성의 50%를 넘는 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기 위한 자치위 교육청 이관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책이라 평가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선교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교육청에 설치될 자치위 기구의 성격은 더 많은 사법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사법기구의 성격을 띌 수 밖에 없어 우려가 된다. 학생들의 일차적 관계성이나 맥락을 알기 더 어려운 지역교육청의 기구는 법원처럼 서류를 통한 결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한 지역의 교육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이 사법기관의 수장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피해회복과 공동체와 관계 회복의 방향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지는 교육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8. 이제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가 필요한 때

이처럼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교육적 조치의 여지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잘 가다듬음으로써 2020년 실행이전에 새로운 개선안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리 잡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결국 학교 스스로 학교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적이고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학교 내의 갈등이 외부로 증폭되는 것을 막고 교사들의 권위회복과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근본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을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이라는 학교 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분쟁해결기구의 신설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도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만약 이 위원회의 성격을 또다시 선도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규정한다면 이번 개선안은 발표할 이유조차 없다. 교육부 발표안대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이하 회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구이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잘못을 한 사람의 처벌을 통해 정의를 이루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이 말은 처벌의 내용이 단순히 일으킨 피해에 상응하는 고통의 부과가 아닌,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책임의 기회를 통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 책임을 진 학생은 용서와 공동체로의 복귀가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의 궁극적인 과녁은 처분결정이 아니라 피해와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회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처분은 결정이 되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의 초기부터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환경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접촉금지가 핵심이 아니라 당사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의 피해와 책임을 이야기 하고 들을 수 있는 보장된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로 하여금 생활지도를 교육영역으로 재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개최 시 회복적 대화모임을 이끌 수 있는 훈련된 진행자들의 확보이다. 회복위원회의 구성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금의 자치위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모르고 진행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회복위원회 위원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회복적 대화모임이나 서클 등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교원과 회복적 정의 훈련을 받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이런 자원이 없을 경우 위촉된 회복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의 교육훈련을 통해 회복적 접근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진행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회복위원회 구성을 6-7명으로 할 경우 교원과 학부모, 지역자원 반반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은 15-30시간의 훈련을 통해 기본적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마다 2-4명의 조정훈련을 받은 진행자를 양성하여 회복위원회 진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2020년 새로운 개선안이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19년 한 해가 이런 준비를 지역교육청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를 통한 학교 내 분쟁해결 접근이 늘어날수록 피해 측에서 요청하는 피해회복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져야할 가해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징계기구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회복의 실질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처럼 개최와 동시에 처분결정으로 귀결되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성과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는 더 이상 학교분쟁해결 과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써 역할을 부여받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을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즉 학교현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모든 학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오히려 회복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전체 학교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10-2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학급과 학년에서 어떤 형태의 위원회로도 사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과 초기 대응을 회복적 접근으로

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교사와 학교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프로그램(program)이 아닌 교육 패러다임(paradigm)으로 깊이 이해해야 하며, 단순한 몇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넘어 생활지도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년별 생활지도 운영체제와 사안처리 전담이 아닌 회복적 생활교육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통해 담임의 학급 공동체성 강화를 돕고 초기 갈등을 회복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예방과 사후처리라는 생활지도 영역이 전반적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토대위에 이뤄지는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결국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체계는 교육청 내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그 지원영역 안에 1)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구회 2)회복적 학교 모델학교 3)분쟁조정지원단 4)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강사단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말한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상호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지도가 문제학생들 ‘에게(to)’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과 학교공동체 전체를 ‘향해(toward)’ 있도록 방향을 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발표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불과 1년여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2019년 한 해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회복적 접근을 준비할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부디 이번 정책변화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로 회복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배움 · 나눔 살아있는 학교 위해 함께 노력”

미래학교 모델 김해봉황초등학교
전문학습공동체 · 학부모 교육 등 4년간 우수한 평가… 나눔학교 선정

회복적 학교 · 특색 있는 교육과정 눈길

김해시 전하로에 위치한 김해봉황초등학교(교장 우조현)는 미래학교 모델인 행복나눔학교로 선정됐다.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를 4년간 운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역의 거점학교로서 경남형 미래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5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봉황초등학교는 지난 4년간 ‘회복적 학교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복나눔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봉황초는 경남회복적 학교 1호이며 회복적 생활교육은 모범 사례가 됐다.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복적 학교를 운영 하면서 학폭도 많이 줄었다. 학년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좋은 성과이며 일반학교와 나누기 좋은 사례이다. 또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 학부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도 자치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 보조가 아니라 3주체로 적극적으로 타학교에 알리고 모범사례를 알리고 있다.

◇ 행복나눔학교 운영 방침

김해봉황초등학교를 이끌고 있는 우조현 교장은 “봉황초는 ‘나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키워가는 어린이’라는 상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겸비한 21세기 주역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은 올바른 인성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교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부모는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학교는 넓고 깊은 배움과 나눔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는 교장으로써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조현 교장은 행복나눔학교의 역할에 대해 “행복학교 4년을 잘 마쳤는데 마찬가지로 경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복나눔학교가 바르게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행복학교 철학을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봉황초는 행복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스스로는 ‘역량중심 미래교육’ 및 행복학교 4대 실천 정도를 점검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 행복학교 4년 운영 성과뿐만 아니라 실천과정, 어려운 점 등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행복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학교 철학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 학교로써 행복학교를 일반화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자발성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 연수 시간 인정, 교육청 주관 나눔의 날 운영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달식 나눔을 지양하고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나눔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봉황초등학교 교사들이 회복적 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전문적 학습공동체

김해봉황초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봉황초는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년교육과정, 수업, 예산, 수업 나눔뿐 아니라 학부모와 만남도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학습공동체도 학교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하지만, 내용면에서 학년에 결정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2월 말 5일 동안 학년 중심으로 새학년 맞이 워크숍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화요일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시간은 일체 학교 전체 행사나 회의를 잡지 않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집중하게 한다. 실제로 화요일 70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년 사정에 따라 3시부터 시작하거나 일주일 2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 내용은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시기에 따라 다르며 학년에 따라 연구하는 내용도 다르다. 학년교육과정 운영(전체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세부계획, 학생평가, 체험활동 등) 및 실천, 수업 나눔, 학년 공동 연구를 한다.

교육과정 운영 외 학년별로 실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주제와 방향을 정하고 함께 연구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온작품 읽기, 책놀이 등 이론과

실천방법을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했는데 이런 연구는 대부분 창의적체험활동 중 학년특색활동으로 이어지거나 단위교과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사전에 동학년 동료교사끼리 수업을 함께 디자인해 실제 수업을 실시하고 사후 협의, 수업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공동수업연구를 한다. 수업비담과 같이 수업을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 동영상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업협의를 하면서 수업을 되돌아보고 교사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업나눔은 학년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학년군 단위로 한 학기에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끼리 묶어 한 학년이 먼저 수업을 공개하고 짝이 되는 다른 학년이 참관한 뒤 함께 수업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물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봉황초등학교 학생들이 회복적 학교 화급 서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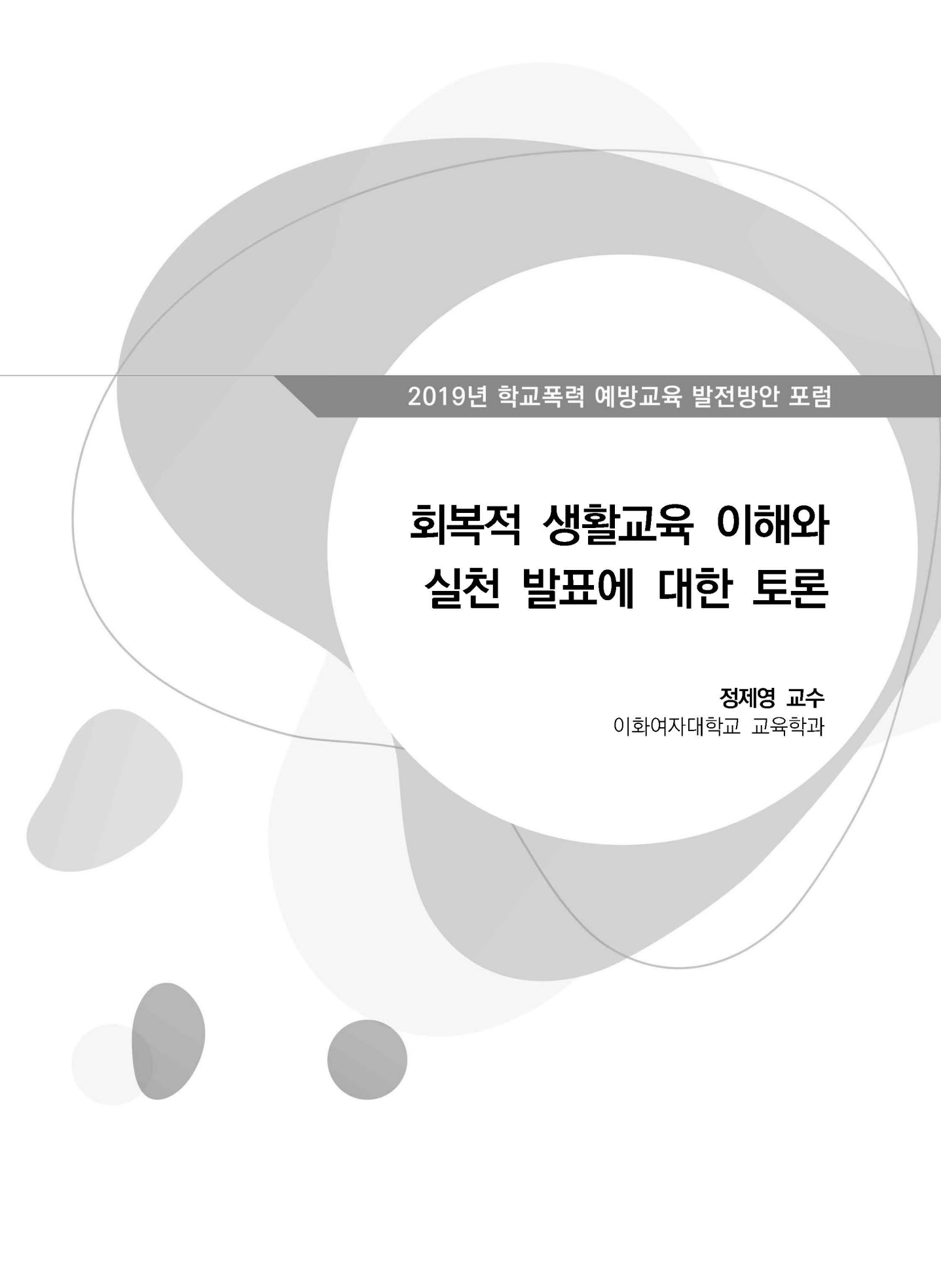
◇ 회복적 학교

김해봉황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김해가 행복교육지구가 되면서면 회복적 도시 사업에 공모, 회복적 학교를 시작했다.

회복적 학교란, 회복적 접근이 학급과 학교 운영 전반에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을 받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학교다. 단순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넘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구성원별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과 생활 전면에서 회복적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직원은 다양한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회복적 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바탕을 마련했고, 학생은 서클 및 공동체 놀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내면화하고 회복적 또래조정동아리를 운영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모는 대중강연 및 연수를 실시했고 학부모와 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 관점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02.27. 경남매일일보 김명일 기자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실천 발표에 대한 토론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실천 발표에 대한 토론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가. 토론에 들어가며

이재영 원장님의 발표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은 매우 의미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님은 회복적 정의를 1974년 캐나다 사범영역에서 시작되어 교육분야로 확산된 “파생상품”으로 정의하시고, 응보적 관점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방적 측면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으로 ‘회복적 질문 활용하기, 서클을 통한 학급운영, 규칙을 넘어 존중의 약속으로, 평화감수성 교육과 공동체성 훈련 일상화, 학년별 생활교육 운영체계 확립’ 등 5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 방법으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활용, 처벌 전후에 건강한 복귀를 위한 공동체 서클의 활용, 관리자의 능력으로써의 갈등 해결, 학생들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및 또래조정 프로그램 시행, 조정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을 제안 하셨습니다. 토론자는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나 반박보다는 지난 8월 2일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 토론자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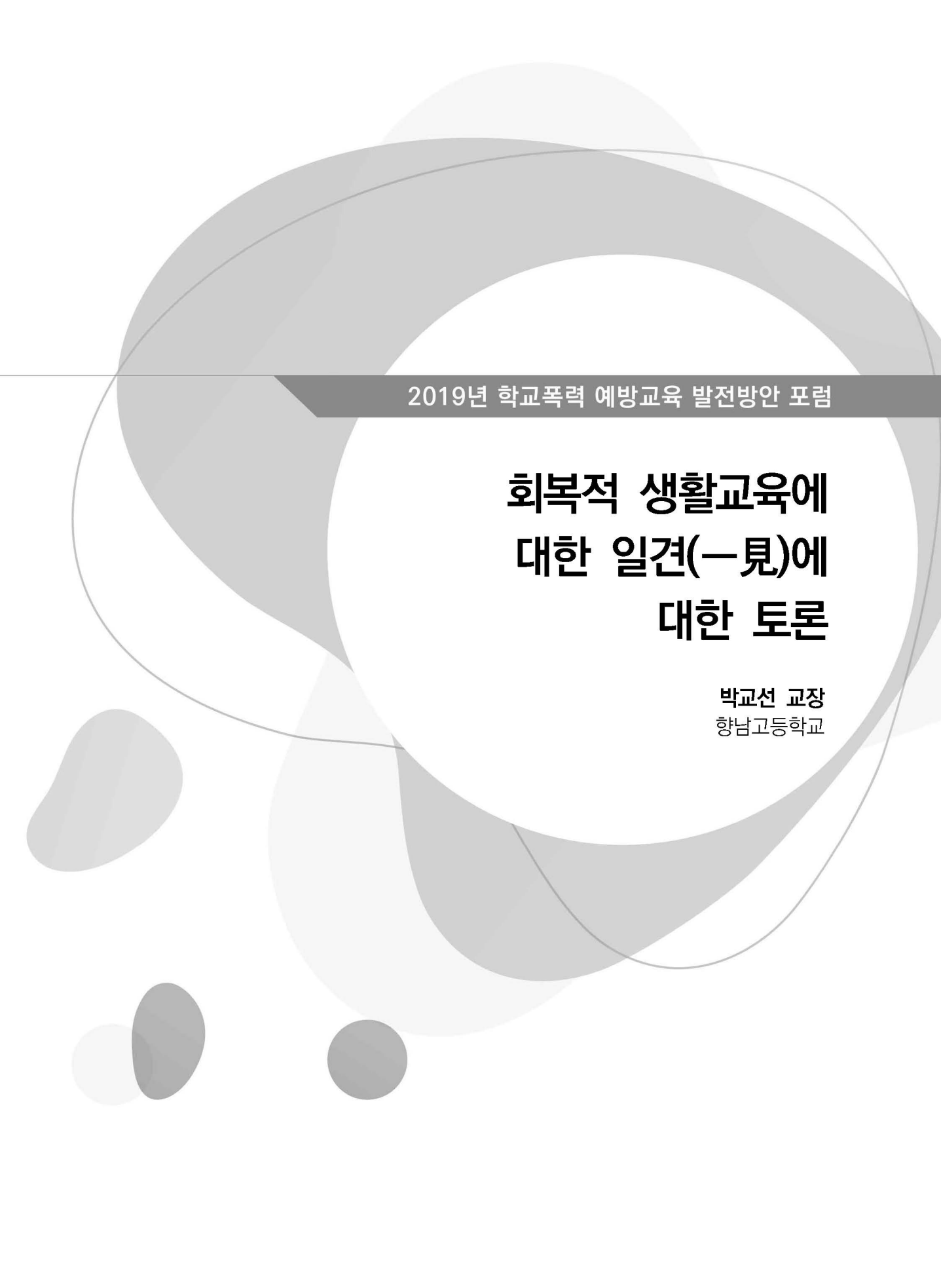
지난 8월 2일에 국회에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면서 학교의 자체해결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9월 1일부터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시행되었다.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3가지 제도적 변화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둘째,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를 일원화하고, 셋째,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로 하향 조정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2011년 말에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잇따른 자살로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하고,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법 적용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율이 낮아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정책 시행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부정적 효과도 초래하였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사항으로 변질되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교우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노력은 사라졌다. 아이들은 다툼 후에 화해하고 잘 지내지만 부모들의 싸움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을 화해시키면 해당 교원은 잠재적 범법자가 된다. 실제 2017년에 교사가 화해시킨 사안이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로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교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였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학교의 교육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사안은 ‘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고, 피해가 즉각 복구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고 법률로 제한하였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학생들 사이의 교우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이 '화해와 교우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자체해결 제도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화해를 종용하거나 피해학생의 동의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학생들 사이에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교육력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새로운 제도의 전면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일견(一見)에 대한 토론

박교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일견(一見)

박 교 선

향남고등학교 교장

1. 회복적 생활교육 필요성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과 활동은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 이에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중시하여 총론에서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듯이 폭력 예방 및 평화감수성 형성 등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회복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생활지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효성으로 볼 때 회복적 생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 생활교육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좀 더 광심(廣深)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첫째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초·중등 교육계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일반화가 필요하며,

둘째는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매년 생활지도(생활교육)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나, 현재는 관련 업무들이 시·도교육청에 이관되었기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시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제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셋째는 특정의 생활교육 방법 중심으로 흐를 경우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넷째는 현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비교적 성공적 생활교육을 하는 학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회복적 생활교육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방안

○ 발제문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는 하나, 과연 어느 정도의 교원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보았거나 그 개념을 이해하거나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용어상으로만 보자면 사건 발생 후 관련자 간 관계 회복 의미로만 느껴질 수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들 역시 평화감수성, 인권존중, 갈등 해결, 배려와 이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교육뿐 아니라 폭력 예방 차원에서 분노조절·의사소통 훈련·평화감수성 훈련·문제해결능력교육·조정과 진행훈련 등 다양한 갈등 해결교육 또는 평화교육등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며, 기존의 생활교육 방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설득력있는 다양한 논리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 관련자들의 선택사항에 해당하기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자 간 관계 회복 등과는 관계없이 심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부록

‘교육관계 회복기간’운영 시 유의사항에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운영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조치’가 있음

이에 가·피해자 간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발제문에서 제안한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구성과 운영은 현행법상의 전담기구와 비슷하기에 현재 개정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9항에 근거를 제시함이 적법한지 검토 후 적법할 경우 여기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5. 전담기구에서 중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 회복한 경우(신설)
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담기구 구성, 학교공동체교육회복위원회 구성·운영)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간의 평화적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②피해자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가해자 측과 평화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신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평화적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경감시켜 주거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 발제문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개최 시 회복적 대화 모임을 이끌 수 있는 훈련된 진행자들의 확보 문제는
 - 단기적으로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학교 규모에 따라 상주 내지 순회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 폭력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기에 이분들의 정기적 직무연수시 본 회복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시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이분들이 소속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해당 소속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함도 하나의 해결 방법일 것이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담당자는 매년 바뀔 수 있으나 전문상담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동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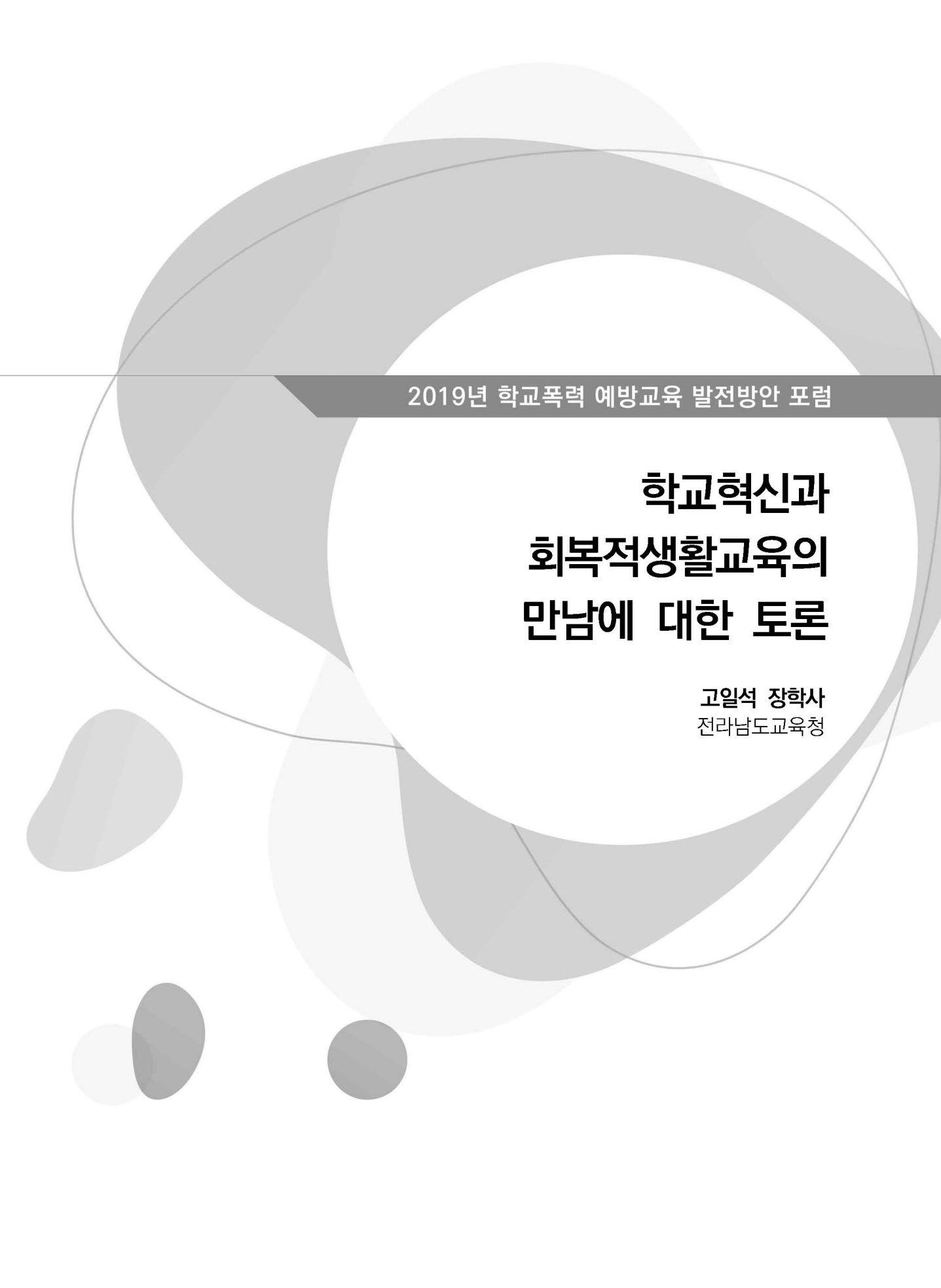
- 발제문에서 제안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체계 구축 차원의 교육지원청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 설립은
 -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에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학생사안 해결 지원, 각종 학생 비행이나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위센터가 있기 때문에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로 대체함도 한 방법일 것이다.

- 기 보급된 학교급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수정 및 보완시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의 평화감수성을 높여 주는 것도 중요한데, 타인의 인권이나 인격 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평화감수성 제고위한 중요 요소에는 타인의 인권이나 인격 존중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학교폭력 예방이나 평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들이 성공하려면 관련 법, 교육과정, 사회적 분위기, 교원들의 근무상황과 문화 및 인사와 연수시스템, 진학과 평가 및 기록 등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기 시행되고 있는 관련 과제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 윤리교육, 성폭력, 인권교육, 인성교육 등)이 많이 개발·보급된 상태인데, 과연 교원들은 이러한 자료들의 존재 자체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이 자료들이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만이라도 진단이 필요하다.
 -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기존 일부 자료들은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과와 관련 단원에서 몇 차시 연속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급된 자료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쉽지는 않을 듯 하다.
 -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교과 모든 교사들이 희망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단편적 참고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자료화하거나 기존의 자료들 내용들을 색인목록화하여 사용자가 색인목록을 보고 원본에 탑재된 제공처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 기존 발행된 많은 자료들은 교원이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형태이다. 이를 바꾸어 해석하면 교원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 따라서 이제는 학생들이 주도적 자치적으로 활용할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활동 자료 개발 보급은 어떨까 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특정 교사에 의한 최초 안내 내지 과정상 지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장점은 학교별로 소수의 교사가 특정 집단(학생자치회 또는 동아리 등)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지원만 하면 학생들이 주도적 자치적으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학교혁신과 회복적생활교육의 만남에 대한 토론

고일석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회복적생활교육의 만남

고 일 석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

1. 들어가며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좌절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는 나에게 혁신학교는 새로운 교육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본래의 길이였음을 확인하는 여정이었다.

2010년 고흥00중학교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나의 혁신학교 도전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공동체가 파괴되었던 학교는 고흥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꽃피워져 있으며,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 매몰되지 않고 학교중심의 전체 교육과정과에 대한 이해와 재구성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

2. 회복적생활교육과의 만남

그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던 2015년, 학교 문화를 바꾸고 수업을 혁신하고 다양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성장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교사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속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열정적인 아이들이었지만 선·후배들간의 군대식 위계질서와 친구들과의 불협화음은 언제나 학교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꿈꿨던 나에게 마지막 숙제 같은 상황이었다. 학교라는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기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업으로만 채울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이며 ‘아이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생활은 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교육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관계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회복적생활교육’의 철학적 접근에 매료되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 편에 서서 소통과 관계맺음이 좋다고 자평하고 지내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맘껏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나 역시 ‘교내질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엄격한 교사로 돌변했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적용하기에 앞서 교사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회복적정의를 기반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회복적생활교육을 이야기하고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일 수 있다. 분절된 교직원간의 파괴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협력적 관계와 민주적 문화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해 실천해 가야할 것이다.

3. 고흥에서의 회복적생활교육의 실천과 확산

2013년부터 고흥00중학교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 다양한 학교혁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년 학생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실천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행해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학생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즐거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 회복적생활교육을 적용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옥죄고 있던 학생생활규정들을 대폭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 평화회복 학급운영 캠프와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해 회복적 생활 교육의 점차적인 실천과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일부가 되어 주었다.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한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며 회복적생활교육은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학교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마침 고흥교육지원청에서 펼치고 있는 혁신교육교육지구 사업에 포함시켜 고흥지역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행히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 교사직무 연수를 시작으로 2018년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프로젝트'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합연수와 새학기 준비워크숍, 교사연구회 구성 및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과 실천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단위학교 공모사업을 통해 회복적 학교와 회복적 학급 운영을 시도해 보도록 지원하였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교육적 성과나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 자체가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본다.

4. 전남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펼쳐지는 회복적생활교육

2018년 5월,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공식 제안되었으며, 다행히 장석웅 교육감의 당선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은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실천과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시, 도에 비해 늦게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도교육청의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며 현장의 교사들의 스스로 만들어가고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전남교육청에서는 회복적생활교육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 학교공동체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수업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가. 회복적생활교육 리더과정, 연구회 운영

기존 개인 연수와 교실과 수업속에서 실천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학교 생활 교육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9년 현재, 전남교육청에서는 회복적생활교육

리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40명의 선생님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여하여 격주 토요일 8시간의 워크숍(연간 160시간)의 강행군을 하며 배움과 실천을 하며 전남의 핵심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핵심리더 그룹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추가 워크숍을 준비중이며, 올해 운영중인 리더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회복적생활교육 연구회와 권역별 연구회 4개를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과 실천을 지역과 학교단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나. 회복적생활교육에 기반한 학생자치활동

전남은 회복적생활교육을 학생자치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학생 자치 담당교사 워크숍, 고교학생자치문화캠프, 지역교육청 주관 초, 중학생 자치캠프, 학교단위 자치캠프 등에 접목하여 서로간 소통과 공동체성을 키우는데 매우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화해조정전문가 양성

학교내 학폭문제가 발생했을 시 학부모나 지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재조정전문가를 학부모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8개 지역청에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전략적으로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은 개인의 공동체성을 키워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학폭법 개정과 학교지원센터 전면 배치로 인해 지역단위 화해조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센터에 배치된 학폭업무 전담자, 위센터 상담교사, 담당 장학사들에게 대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라. 회복적생활교육의 진화 - 원탁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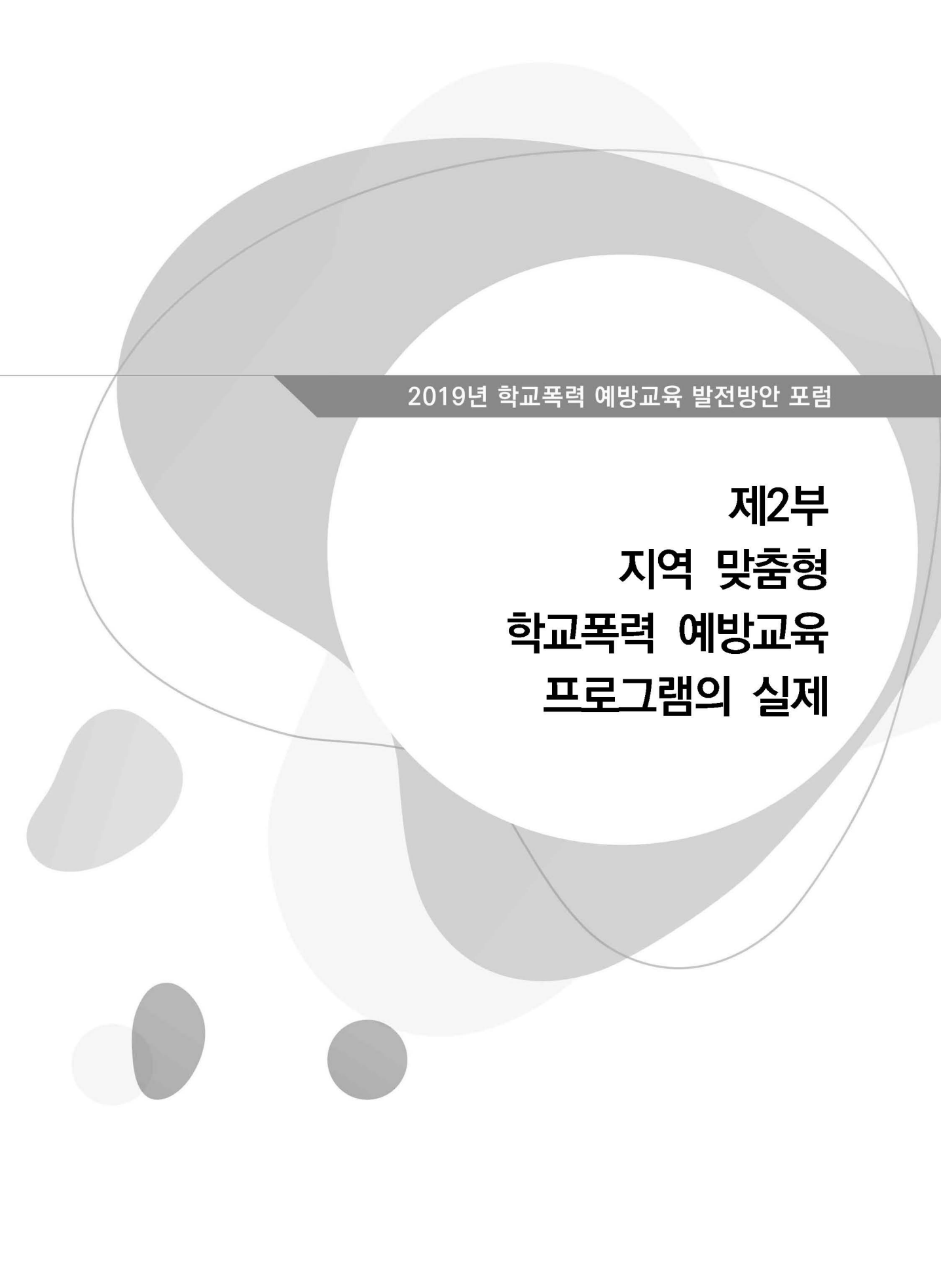
전남에서의 또다른 특별함은 회복적정의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한 신뢰서클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교육청 역점과제 중 하나인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상명하복과 분절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팀간, 부서간 협력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신뢰서클을 응용한 다양한 원탁토론을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민주적 협의문화가 확산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5. 나오며

얼마 전 00초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교무부장님으로부터 온 문자를 보며 무척이나 행복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2학기 학교설명회를 신뢰서클을 이용한 학부모 모임을 기획해 운영해 보았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교감 선생님께서 앞으로 학부모 모임을 서클로만 진행하자고 신나하셨다고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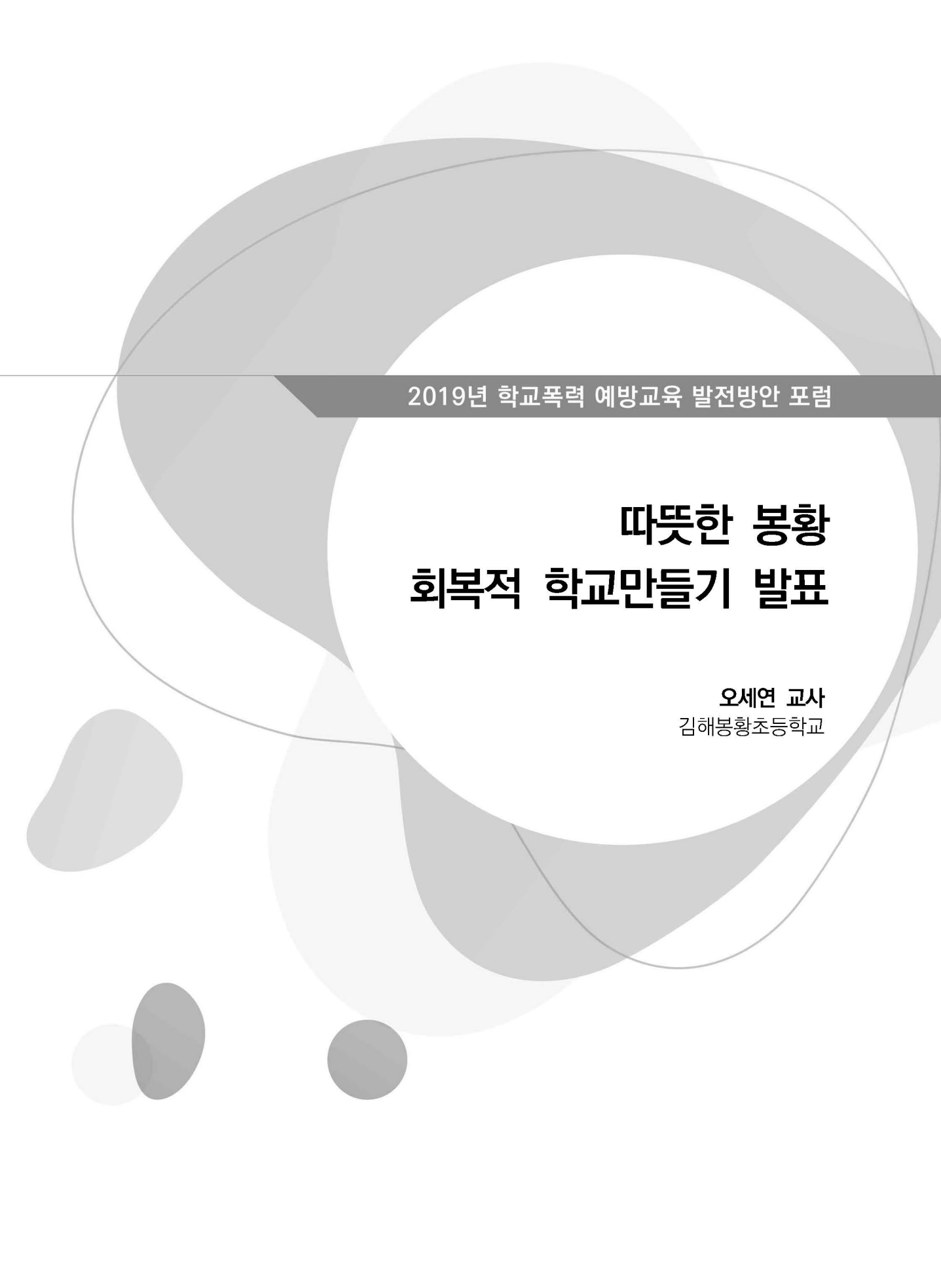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해야 학교의 건강한 교육공동체성이 구축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전남은 가장 늦게 시작하고 있지만 더 천천히 교사들의 자발성과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제2부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따뜻한 봉황 회복적 학교만들기 발표

오세연 교사
김해봉황초등학교



따뜻한 봉황 회복적 학교 만들기



김해봉황초등학교 오세연

회복적 학교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가치와 원칙들이 **교육 공동체** 전반의 맥락
이 되어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
와 **문화**가 구성원들 간의 배려와 상호 존중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실천되는 학교다

-회복적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김해봉황초등학교는

학급수
34(2)

교직원
교사(45), 일반직(5),
계약직(21)

2015~2018
(행복학교1기)

2019~2022
(행복나눔학교)

위치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학생

01

김해봉황초 학생 20%이상
- 다문화, 한부모, 조손, 탈북, 저소득
↓
- 가정에서 돌봄이 제대로 안됨
- 교실상황: 매 순간 갈등 발생
다툼을 늘 지켜봐야 하는 대 다수 학생



교사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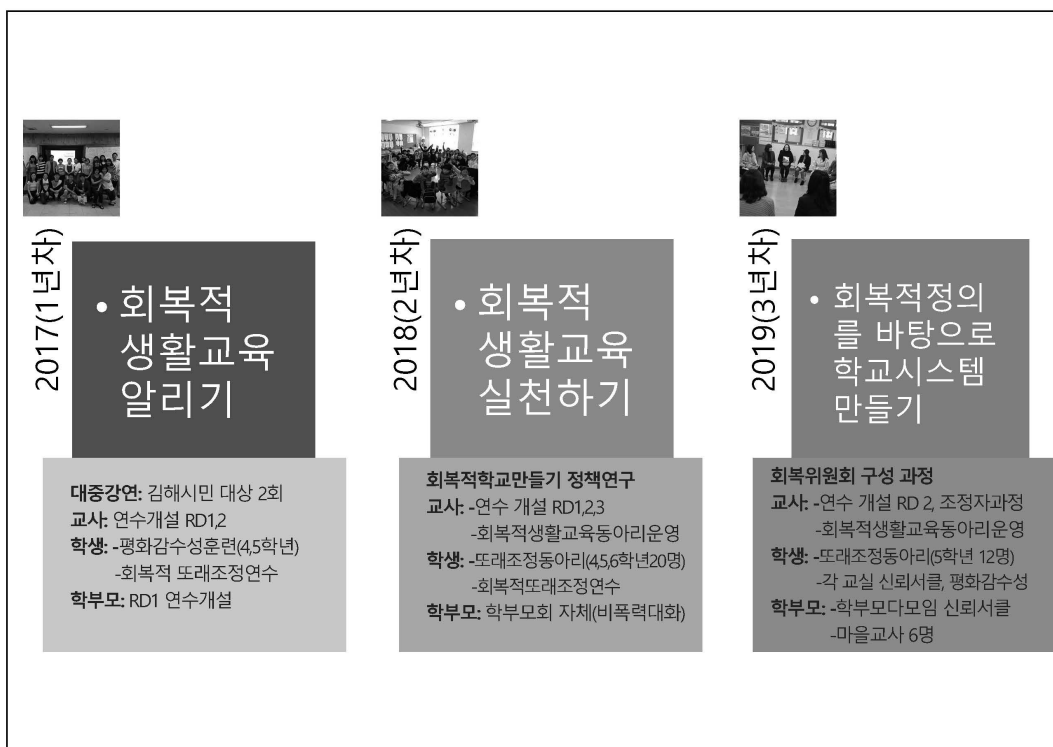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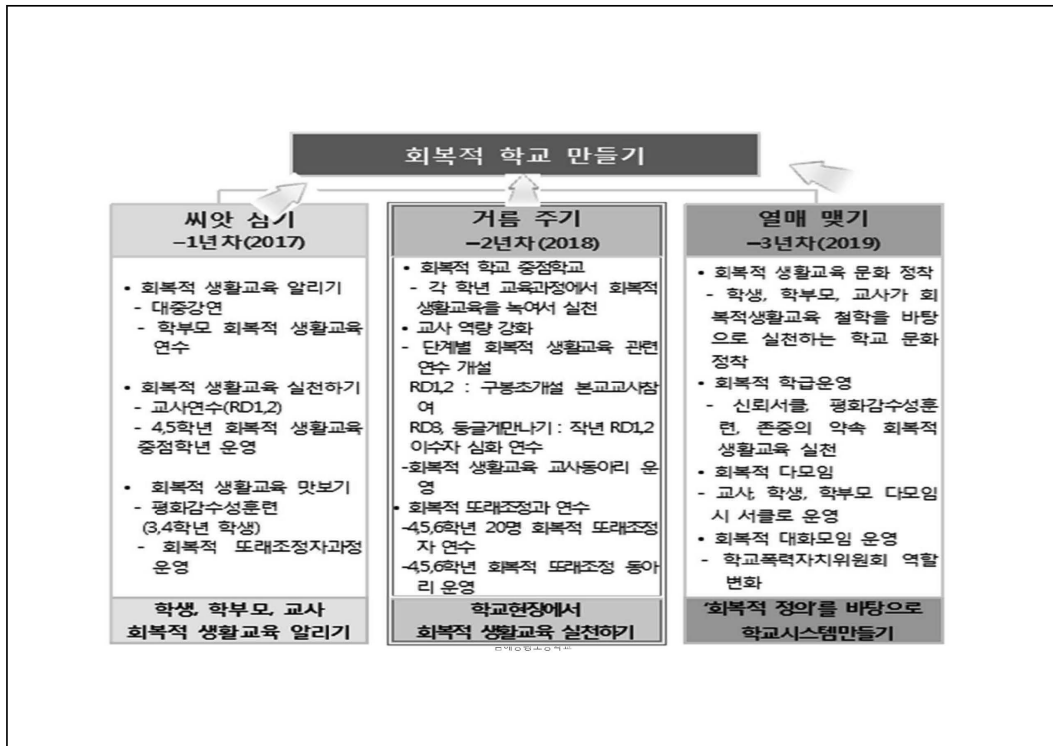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매년 학교를 떠 남
↓
- 수업 고민할 시간이 없음
- 전문적 학습공동체 를
꾸리기 어려움



학교

03

2015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 시작
↓
- 학교문화 고민 의무 생김
- 행복학교 추진과제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 방향고민



2017년 새학년 교육과정 워크숍

순	날짜	대상	세부 활동 내용	비고
1	2017.02.06.(월)	전교직원	(14:00~17:00) 행복학교 반성 다모임	교무
2	2017.02.10.(금)	전교직원	(14:00~17:00) 학교교육과정 및 행복학교 반성 협의회 (17:00~20:00) 석식 및 2017학년도 행복학교 계획안	연구 교무
3	2017.02.20.(월)	전교직원 (전입포함)	(08:40~12:00) ❶ 비전철학공유하기, 학년및담임 배정 (12:00~13:00) (중식) - 인근 식당 (13:00~16:40) ❷ 행복학교 공동체 의식 공유 (17:00~20:00) 석식(관계형성) 및 행복학교 4대과제	교무 체육 연구
4	2017.02.21.(화)	전교직원 (전입포함)	(08:40~12:00) ❸ 학교교육과정 알아보기-설명식 (12:00~13:00) (중식) - 인근 식당 (13:00~16:40) ❹ 학교교육과정 이해하기-Q&A	연구 학년
5	2017.02.22.(수)	전교직원 (전입포함)	(08:40~12:00) ❺ 학년 교육과정 엮기 (12:00~13:00) (중식) - 인근 식당 (13:00~16:40) ❻ 학년 교육과정 함께 나누기	학년 학년

2018년 새학년 교육과정 워크숍

시 정	2/8(목)	2/21(수)	2/22(목)	2/23(금)	2/26(월)~27(화)
09:00 ~12:00		■ 오리엔테이션 (09:00~10:00) 전입교사 ■ 관계 맺기 ■ 생각 나누기 - 학교 바라보기 (교무기획부장) - 전체모임	■ 학년 교육과정 살펴보기 (2018 학년부장) - 학년모임	■ 회복적 정의로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 이재영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전체모임	■ 2018 학년 교육과정 세우기 ■ 3월 진단활동 세우기 ■ 교실 정리 *학년 단위로 운영 (2018 학년부장)
12:00 ~13:00		점심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00 ~16:40	■ 인사나누기 ■ 학년 및 담임 배정 (15:00~) - 전체모임	■ 2017 학교교육과정 살펴보기 (행복연구부장) ■ 교직원 협의회 (학교 인근 식당) 전체모임	■ 교실 이동 및 정리 (학급 담임) ■ 회복적 학기 초 적응활동 계획 세우기 - 이재영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회복적 학급 및 학교 만들기 ■ 회복적 학기 초 적응활동 계획 세우기 - 이재영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전체모임	
16:40~			전체	전체모임	학년모임

2019년 새학년 교육과정 워크숍

시 정	2/8(금)	2/15(금)	2/20(수)	2/21(목)	2/22(금)	2/25(월)~26(화)
09:00 ~12:30			■ 전임교사와의 만남 (08:00-08:30) ■ 문화마당 ■ 다함께 도어기 (08:30-10:30) (윤혜정) ■ 나로부터 시작하는 학교문화 (정영숙)	■ 학년 교육과정 살펴보기 (2019 학년부장)	■ 회복적 생활교육 출발과 철학 세우기 - 이재영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2019 학년 교육과정 세우기 ■ 3월 진단활동 세우기 ■ 교실 정리 ■ 학년 단위로 운영
12:30 ~14:00		■ 2018 학년 교육과정 돌아보기: 생활 & 인정의 시간 (12:00-14:00)	점심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4:00 ~16:40	■ 학년 및 담임 배정 (15:00~)	■ 전제모임 (전임교사)	■ 행복학교가 왜예요? (교장선생님) (13:30~14:00) ■ 회복적 학교가 왜예요? (최자옥) (14:30~15:00) ■ 2019 학교교육과정 및 행복나눔학교 도전과제와 계획 살펴보기 (박수현) ■ 교직원 협의회 (학교 인근 식당)	■ 교실 둘러보기 및 점 옮기기 (학급 담임) ■ 학습도움반 담임과 특수교사와의 만남 (오세연) (3:30~4:30)	■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씨글 레시피 ■ 교실 속 연결과 공동체 세우기 - 이재영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019 학년부장) ■ 2/26(화)~27(수): 5, 6학년 개정교육과정 집합연수
16:40~			전제모임	학년&전제모임	전제모임	학년모임

2018년 회복적 학교(교육과정설명회)

- 목적 : 회복적 정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감.

구분	내 용
회복적 생활교육	신뢰씨클, 문제해결씨클, 관계놀이, 존중의 약속을 바탕으로 회복적 학급 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과 수업	회복적 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수업에서 실천(재구성, 프로젝트, 체험 등)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교직원, 학부모, 시민 대상 연수 - 회복적 정의가 바탕이 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 - 회복적 생활교육(씨클 진행, 조정 등) 실천가 양성
또래조정	또래조정자교육 및 양성, 또래를 통해 문제해결 및 관계 회복

2019년 회복적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회복적 학교

- 목적 : 회복적 정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감.

구분	내 용
회복적 생활교육과 수업	- 신뢰씨를, 문제해결씨를, 관계놀이, 존중의 약속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적 학급 만들기 - 교육과정 안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회복적 생활교육 학년 이꿈이 교사	- 학년 안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이꿈이 교사 세우기 - 지속적 실천 및 피드백을 통해 철학 공유 및 구체적 실천 이어가기
또래조정	또래조정자교육 및 양성, 또래를 통해 문제해결 및 관계 회복

2018년 학교교육과정

- 목적 : 회복적 정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감.

구분	내 용
회복적 생활교육	신뢰씨를, 문제해결씨를, 관계놀이, 존중의 약속을 바탕으로 회복적 학급 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과 수업	회복적 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수업에서 실천(재구성, 프로젝트, 체험 등) 교직원, 학부모, 시민 대상 연수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 회복적 정의가 바탕이 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 - 회복적 생활교육(씨를 진행, 조정 등) 실천가 양성
또래조정	또래조정자교육 및 양성, 또래를 통해 문제해결 및 관계 회복

2019년 학교교육과정

- 목적 : 회복적 정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감.

구분	내 용
회복적 생활교육과 수업	- 신뢰씨를, 문제해결씨를, 관계놀이, 존중의 약속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적 학급 만들기 - 교육과정 안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회복적 생활교육 학년 이꿈이 교사	- 학년 안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이꿈이 교사 세우기 - 지속적 실천 및 피드백을 통해 철학 공유 및 구체적 실천 이어가기
또래조정	또래조정자교육 및 양성, 또래를 통해 문제해결 및 관계 회복

2018 따뜻한 봄방학 화북적생활교육 교직원자율동아리 일지

1. 날짜 :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15시 30분~

2. 참석자
오세연, 정혜린, 오지현, 최자숙, 박용, 맥기원, 김지민, 황진희

3. 마음나누기

- 박용 : 초·중·고 학생 행동으로 고민이 많았으나 한 주를 잘 마무리함
- 오지현 : 연구회 활동 처음으로 중간 보고서 부담이 되면서 열심히 해야겠음
- 정혜린 : 학급분위기가 좋았다고 오늘 감정이 오는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함
- 세연 : 도움받은 학생들, 여러 일이 있어 힘이 힘들지만 마음이 편함
- 지민 :
- 진희 :

4. 사례나누기

- 김지민(4-4)
- 학급에서 씨름을 3회 정도 실시
①4학년의 학기초 함께 만든 주제로 ②3학년 주제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려'임
-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 안전사고, 선생님 고향소리, 장을 잘 못 잘 때, 학교 밖에서 많이 노는 것 같았다.
 - ◆안전하다고 느낄 때 :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어른(특히,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 ◆씨름을 좋아하는 이유 :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들을 수 있어서.

◆종합해보면

- 날씨가 개지면서 씨름을 만들어 씨름을 잘 하고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움
- 씨름에 이르기 또는 두뇌를 노는 것으로 각자 다른 씨름을 진행해보고 싶은

정혜린(4-5)

- 아이스크림이감을 많이 한 학년지 씨름을 늘려보려 인식하는 것 같다.
- "나는 언제 두렵다고 느끼니?" 너무 진지한 주제로 질문을 던진 것인데 패스가 많았고 사실 안 맞고 감정을 나누지 않았다.
- 선생님(혜린쌤)이 내 이야기, 같은 고민거리까지 말하니, "계속 살아야 하나?" 같이 깊은 고민까지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 마음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고 진지하게 씨름을 진행해보고 싶다.
- 날자와 여자가 나누는데 어떤 학급 분위기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2019

<나를 빛나게 하는 20가지 월별 가치와 중점을 만나기>

3월	충성, 정직, 단결
4월	주정, 배려, 소중
5월	감사, 나눔
6월	정직, 근면
7월	단결, 열정
8월	자율, 책임
9월	정직, 근면
10월	충성, 단결
11월	주정, 배려
12월	감사, 나눔
2월	정직, 단결

< 4월 중점을 만나기 >

♡가치 : 우정, 배려

♡가치 선정 이유 : 3월 한달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이제 한 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지난 3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진짜 우정을 나누며 따뜻한 한 반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는 질문	□ 내가 중요하면 힘이 되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1. 최근에 나를 도와주거나, 또는 내가 도와준 친구가 있었나요? - 주제를 상황과 이유를 말하면 더 좋다. - 지난 3월과 4월 씨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주제 질문	2. 내가 존중받거나,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서 비난하는 시간이 아님을 이해한다. - 그 때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실천 질문	1. 우직한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약속(배려할 수 있는 행동들) - 친구의 배려한 말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기대음) - 약속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들...
	2. 우직한 친구와 비교도 싶은 행동 - 함께 하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행동들
종사 질문	□ 나는 어떤 친구가 좋아하... -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의 친구란?
말는 질문	오늘 씨름을 하면서 배웠거나, 새롭게 알게된 점,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회복적 생활교육 1학년은

1학기

회기	날짜	목표	주제	연계
1	4.03	회복적 가치 소개	- 회복적 생활교육 소개 및 씨름 가치 안내	자율
2	4.10		- 안전한 우리 교실 만들기	자율
3	4.17		- 평화롭고 안전한 우리 학급 만들기	자율
4	4.24		- 'OO한 존중의 약속' 만들기	자율
5	5.09		- 사물의 약 선별하기 (감사)	자율
6	5.16	공동체 세우기	- '엄마 까투리' 영상을 보고 소감 나누기 - 부모님이 고마웠을 때 발표하기 -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나는 무엇을 잘 할까요? 나의 강점 알아보기	자율
7	5.23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 문화 조성하기	- '고구마구마' 동화 듣기 - 자기가 잘 하는 것을 "구마로 말하기" - 다른 친구들이 ○○하는 "도 잘 하는구마로 칭찬사 원래 주기 (합동)" - 모둠 총선 치기 4인 1조 총선 1개 - 먼저 모둠 대항 총선치기 실시 - 모둠원끼리 작전을 할 시간을 주고 다시 실시 - 모둠 대항전이 아니라 반 단위로 하자 다른 모둠이 할 때 응원을 해줌.	자율
8	5.30		- 소원 이야기 나누기	자율
9	5.13		- 나는 어떤 느낌일까? - 나에게 중요한 것은 - 다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알아보기	자율
10	5.20	공동체 연결하기	- 우리끼리 잘 할까? - 우리끼리 잘 할까?	자율
11	5.27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 화를 낼 때 내 마음 - 화를 낼 때 내 마음	자율
12	6.03		- 회복적 대화 연습해보기 - 회복적 대화 연습해보기	자율
13	7.11		- 회복적 대화 연습해보기 - 회복적 대화 연습해보기	자율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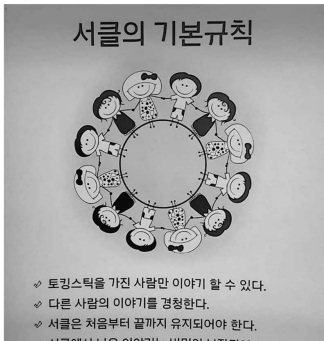
회기	날짜	목표	주제	연계
1	8.28		- 이렇게 들어봐요(경청의 바른 자세와 방법 재확인)	자율
2	9.04		- 누가 많이 할까	자율
3	9.11		- 너와 내가 나누는 마음	자율
4	9.18	공동체 연결하기	- 긍정 정서 활성화(함께 웃어요)	자율
5	10.02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 관점 전환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자율
6	10.23		- 감사함 찾기 (내 몸, 사물, 사람 등)	자율
7	10.30		- 관계인식	자율
8	11.06		- 도움 주는 기쁨, 도움 받는 고마움	자율
9	11.20		- 친구의 강점 찾기	자율
10	12.04		-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	자율
11	12.11	공동체 지키기	- 주었음을 알아주길 바라니(도매 조정-나도 칭찬사)	자율
12	12.27	갈등 상황	- 평화로운 공동체란	자율
13	1.30			

계획 창체 24HR→서클, 공동체 놀이 익숙



서클(둥글게 만나기)

서서 만나기, 앉아서 만나기, 의자에 앉아서 만나기



회복적 생활교육 1학년은

서클로 만나는 공동체 놀이

- 과일 바구니, 가위바위보, 동물
- 손님 모셔오기
- 탕수육
- 혼자 왔어요
- 고리 전달하기
- 콩 주머니 옆으로 전달하기
- 콩 주머니 바구니에 넣기 등
- 마인더 업 스티커 붙여주기



그림책 읽기 서클로 활동(국어와 창체)

고구마구마 : 칭찬사워

눈물바다 : 나쁜 감정 버리기

괜찮아 : 내가 잘 하는 것 찾기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 :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마인더 업 스티커 붙여주기

안돼 삼총사 :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난 네가 부러워 : 부러워 활동

내 친구의 좋은 점 : 친구의 장점 찾아 칭찬해 주기

내 마음이 부서져 버린 날 : 속상할 때 기분을 좋게 하는 나만의 방법 등등



양파기법으로
가정생활 분석
-공개수업-

복제인간 윤봉구로 삶 나누기
-~인척 했던 경험은?
-사장님처럼노력했는데 안됐던경험

그림책 읽고 입장서클
-돼지, 농장주인, 정부 입장

평화감수성 훈련
학년존중의약속
학년대모임



인권과 법을
회복적 가치와
연결



우리집 갈등

- 가족원
 - 아버지
 - 어머니
 - 형제
 - 조부모
- 가족 외
 - 친척
 - 친구
- 가족 외
 - 사회
 - 문화
- 가족 외
 - 경제
 - 환경
- 가족 외
 - 정치
 - 종교
- 가족 외
 - 교육
 - 직업
- 가족 외
 - 건강
 - 노년
- 가족 외
 - 사망
 - 장례



[illegible]

해봉해 프로젝트

나와 너를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

따뜻한 책읽기

-6학년이
1학년에게-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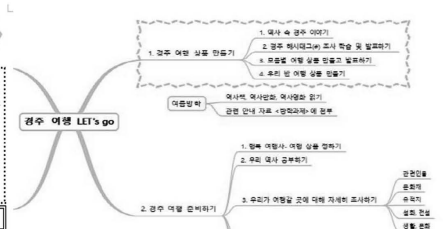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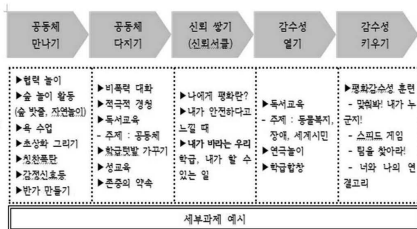
회복적 생활교육 4학년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5학년은



행복품앗이 운동회, 여행기획으로 공동체성↑

행복품앗이 운동회, 여행기획으로 공동체성↑

우리 팀 협력 올도게

기린의 3-3반 존중의 약속 만들기

학생 → 선생님 존중하기

1. 선생님 말씀 집중하기
2. 예의 바르게 말하기
3. 수업에 집중하기(해마알것야)

⇒ 시간이라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기

선생님 → 학생 존중하기

1. 친절하게 대하기
2. 칭찬 많이 하기
3.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하기

⇒ 비리는 것은 일기장 / 편지로 전달하기

학생 → 친구 존중하기

1. 사이 좋게 지내기
2. 놀리지 않기(무시하지 않기)
3. 친절하게 말하기

⇒ 서로의 말, 행동이 편했다고 할 때 까지 친심을 다해서 여러 번 말하기

학생 → 우리 반 존중하기

1. 깨끗하게 청소하기
2. 공동물품은 소중히 사용하기
3. 교실에서는 소곤소곤 말하기

⇒ 모든 시간엔 교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학생은 서클이 일상, 또래조정자

2018 김해봉황초 “존중의 약속” 만들기

교사→교사	행정직원→교사	관리자→교사
• 학생 양면, 뒷면에서 생각해 줄 때(인사, 배려, 존중, 협동, 협력) • 내 이야기를 전달하길 때(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 반갑게 인사할 때 •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 • 서로의 말과 행동을 존중할 때 • 약속한 일에 자기 할 때 • 보수를 지킬 때 •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줄 때 • 동시에 답답해 인사할 때 • 서로 왕장 자리를 만들 때 • 정중하고 유쾌한 말투로 할 때 • 행정실과 관련 있는 학년 학과 간식을 할 때 • 불우자를 웃으면서 고쳐줄 때 • 잘 들어줄 때 • 배려를 할 때	• 눈치없이 복수 신청할 때 • 불합리한 인사 처리 할 때 • 주권, 불평, 불만 • 아이들을 이해 하고 같이 해결할 때 • 모든 일이 분기별 교사 집합에서 이해할 때 • 복수나 불합리한 인사 처리를 할 때 • 불우자를 웃으면서 고쳐줄 때 • 배려를 할 때 • 업무에 관심 보일 때
교사→관리자	교사→행정직원	
• 복수사실을 미리 알릴 때 • 인사적으로 대우할 때 •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 • 인사 할 때 • 인사 할 때 • 인사 할 때	• 반갑게 인사할 때(안부, 관심) •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할 때 • 복수나 불합리한 인사 처리 할 때 • 불합리한 인사 처리 할 때 • 인사 할 때 • 인사 할 때	

교사 서클로 회의문화 변화, 교직원신뢰서클, 교육과정워크샵, 연수

다봉 회복적생활교육 자율동아리



학부모다모임, 마을교사로활동, 인근학교연계



회복적학교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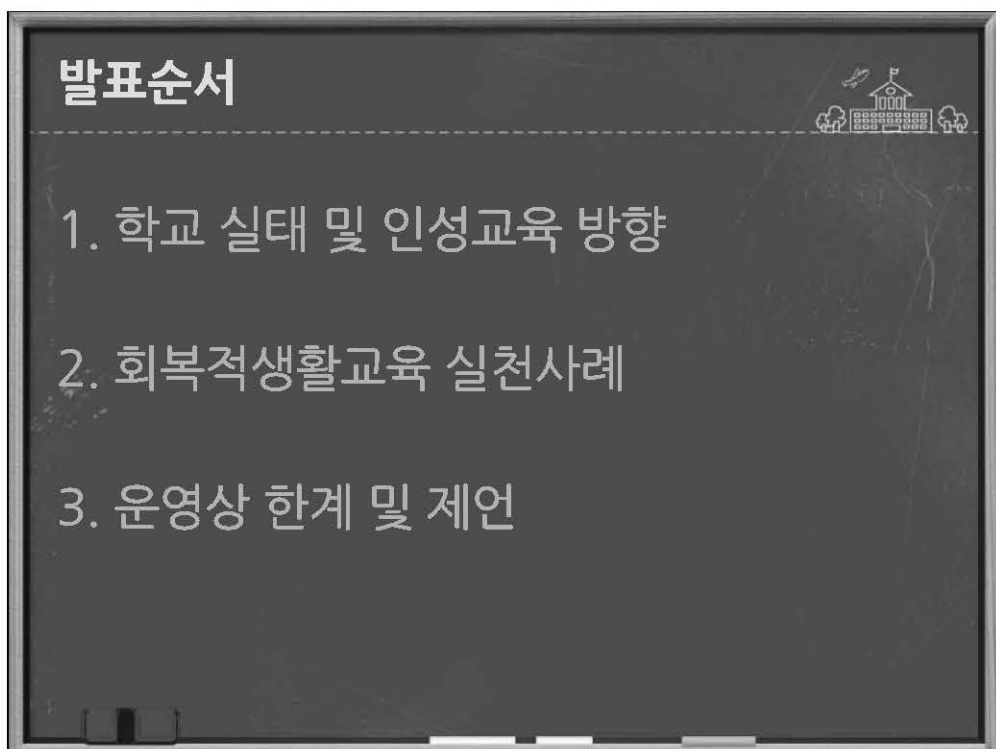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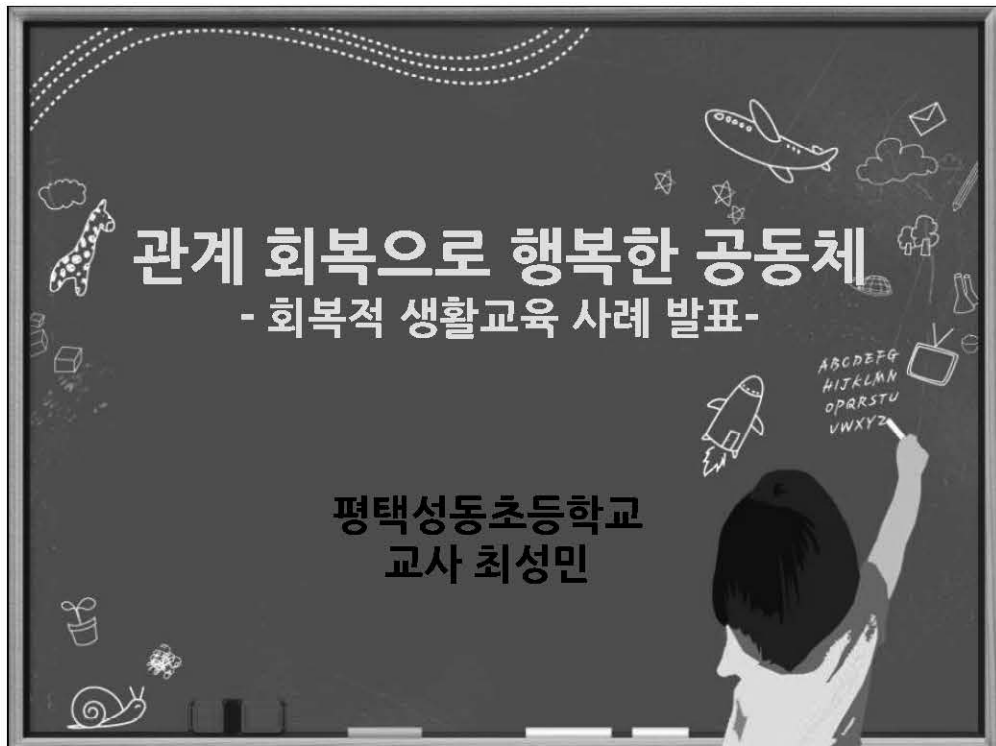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지만
천천히 함께 가려고 합니다.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관계 회복으로 행복한
공동체(회복적 생활교육 사례)
발표**

최성민 교사
평택성동초등학교



1-1. 학교실태



강점	약점
- 소규모 학교 (19학급) - 학생, 학부모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 다양한 연령층의 선생님들 - 2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없음.	- 가정환경이 다양함. (다문화, 생활수준 격차) - 1인당 교사의 업무가 많음. -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짐 -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

1-2. 인성교육 방향



평택성동초 인성교육의 방향

1. 다름을 인정 : 아이들이 6년 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성 강화** 돕.
2. 공동체: 한 학년 단위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동학년끼리의 협력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관계성 강화와 공동체문화 형성

2. 회복적생활교육 실천사례



1.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
- 회복적 생활교육 환경 구축

2.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3.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 학생중심 동아리활동
- 학생 주도 학년 행사

2-1.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 확산



●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 확산

- 연수를 통해 회복적 써클 경험
- 토론을 통해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필요성 공감



2-1. 회복적 생활교육 환경 구축



●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 학년별 협의하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간 확보
- 매주 월요일 1블록을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도덕으로 잡아 회복적 써클 및 인성교육을 진행

2. 특색 있는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매주 월요일 1교시

- 회복적 생활교육 서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 주말지낸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 간단한 대화(돌아가며) → 세부 대화(자유롭게)

	월 (8일)
행사	
	자 율
1교시	회복적 생활교육 마음 나눔 활동(자유활동)
	-

2-1. 회복적 생활교육 환경 구축



●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 회복적 써클에서 할 교실놀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구
-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매트구입)



2-2.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회복적 써클 활동

-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눔. 주제는 아이들과 정함
- 가벼운 주제: 주말이야기, 오늘 나의 감정상태 등
- 무거운 주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물로?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2-2.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회복적 써클 활동

- 다양한 대화 도구 이용
- Bridge 카드 : 다양한 질문이 나와있음
- 프리즘 카드 : 사진을 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야기



2-2.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회복적 쉼클에 대한 아이들의 고백

"가끔은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는 거 같아 좋아요."

"월요일 1블럭이 부담 없어서 좋아요."

"평소에 이야기를 안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공부 안해서 좋아요."

2-2.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관계를 이어주는 교실놀이

- 대화를 마치면 교실놀이로 이어감
- 교실놀이를 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아감



2-2.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 회복적 성찰문

- 갈등,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회복적 성찰문을 적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감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복적 성찰문		반영교사
2학년 1반 15번	성취나눔과 실력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친구와 놀다다니다 친구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친구가 나를 보고는 화를 내며 나를 혼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친구의 가방에는 책과 연필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돌려주고 사과했다. 친구도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었다.		
2.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들)라고 생각하나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		
3.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행위)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의 가방을 돌려준다.		
4. 감정을 다스려 주면(학)도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		
5. 어떤 일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었나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		

2-2. 공동체성 강화 프로그램



● 학급 협동미션

-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때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함
- 협동을 통한 성공 경험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함



8자줄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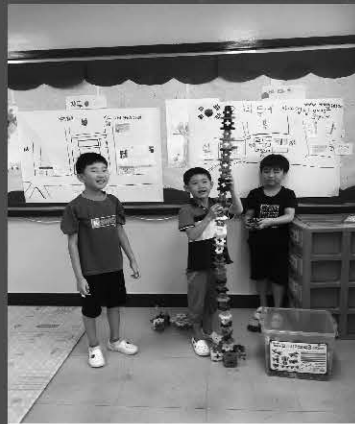
퍼즐 맞추기

2-3. 학생중심 동아리활동



● 학생중심 자율 동아리

- 자신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운영
- 학급 뿐 아니라 학년 전체로 확대하여 아이들끼리 소통하며 관계 회복의 장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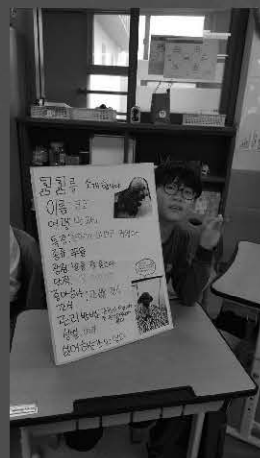


2-3. 학생 주도 행사



● 학생 주도 교육과정 행사

- 학년 바자회, 동물 박람회, 다문화 축제 등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년전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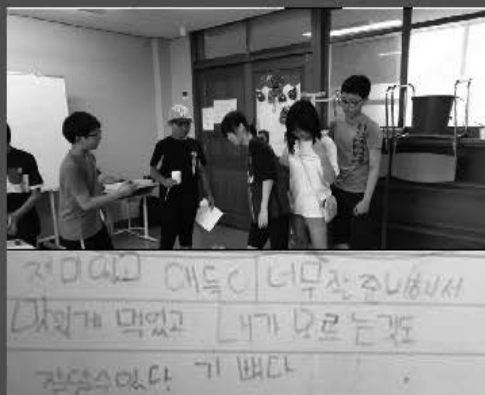


2-3. 학생 주도 행사



○ 학생 주도 교육과정 행사

- 학생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두 친구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배우고, 다른 반 친구들과 교류하며 친밀감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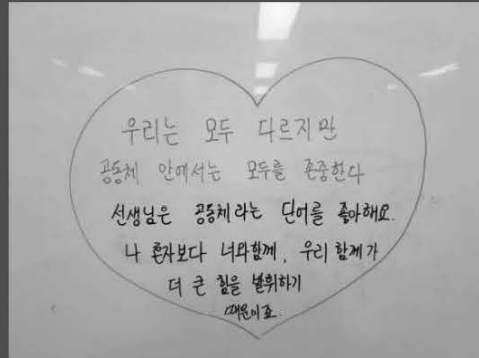


3. 운영상의 한계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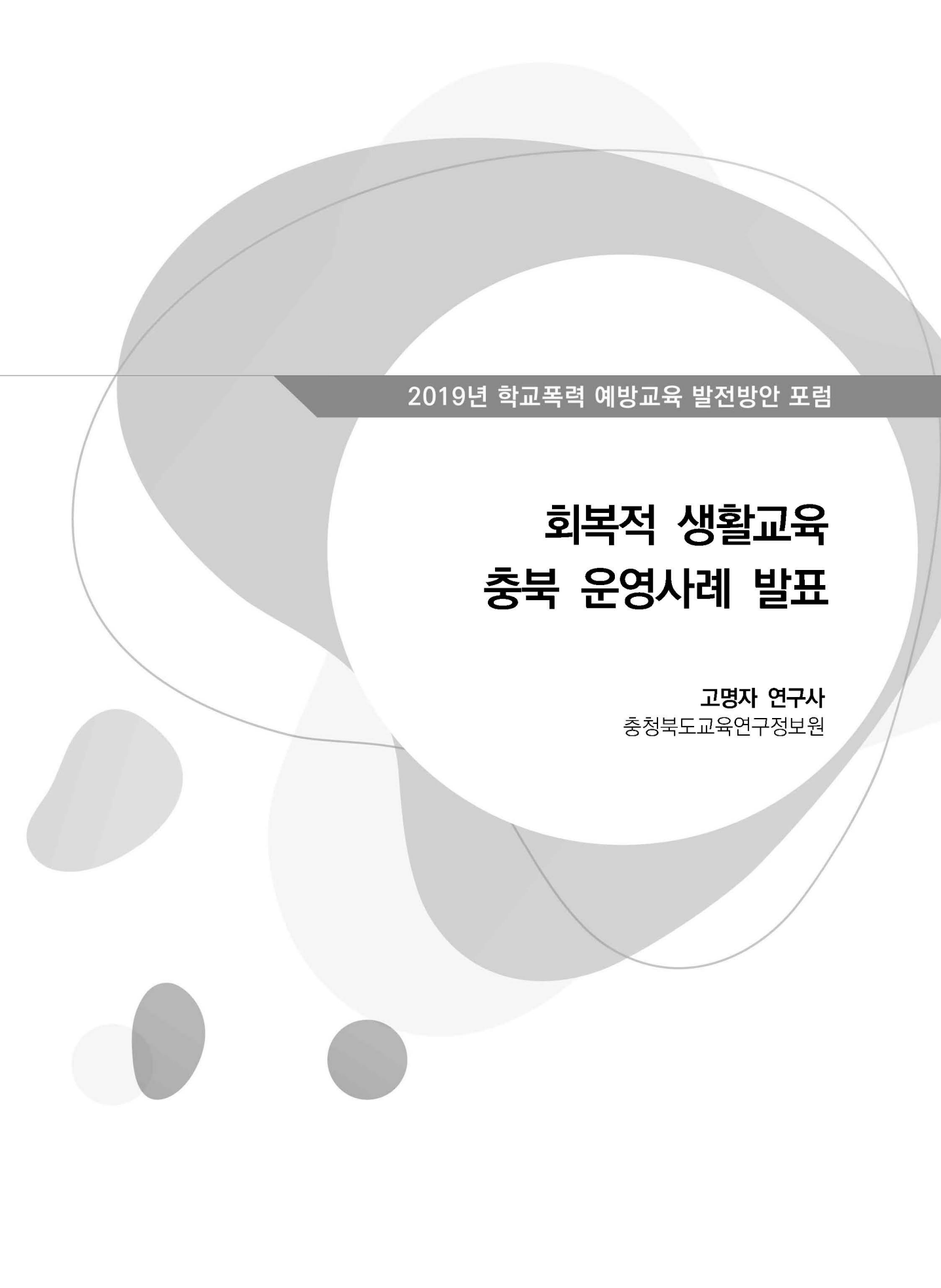


한계	제언
- 학년, 학교 전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짐 - 회복적 써클 운영의 어려움 (경청, 말하기 훈련) -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림	- 학교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대화로 공감대 형성 필요 - 연수, 전문적학습 공동체를 통한 방법 공유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과정 편성, 물적자원 지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교육에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 존중에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회복적 생활교육 충북 운영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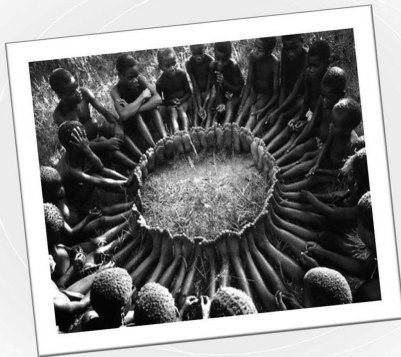
고명자 연구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회복적 생활교육 충북 운영사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고명자



1.

충북연구회 운영

충북연구회 운영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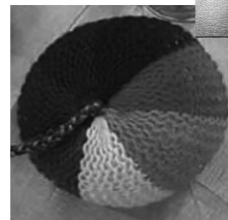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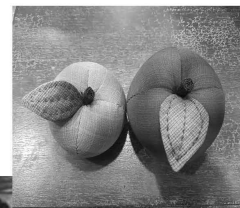
회복적 생활교육 충북연구회



충북연구회 운영

충북연구회 활동

- ◆ 정기모임(매월
첫째 주 목요일)
- 사례 나눔
- 워크숍 준비



충북연구회 운영

충북연구회 활동

◆ 워크숍 진행(매월 둘째 주 목요일)

- 공개 강좌
-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후원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 공유

충북연구회 운영

2019 정기모임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저녁 6시~8시

장소
청주 수곡중학교
3층 학습공동체실

회복적학교연구회 충북연구회

3/14 이재영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 학교	4/11 서동욱	학급공동체 서클의 실제와 기획
5/9 윤구식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의 필요	6/13 유지숙	회복적 정의에서의 수치심 활용
9/19 이형우	학폭법과 회복적 생활교육	10/10 한정훈	회복적 생활교육과 공동체
11/14 이형우	갈등 전환을 위한 회복적 대화모임	12/12 이재영	회복적 학교에서 회복적 도시로

주관 : KARJ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후원 : K&PI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충북연구회 운영

충북연구회 활동

- ◆ 새학기 맞이 워크숍(2월)
- ◆ 자율기획연수 운영(5월 ~ 11월)
- ◆ 연수 강사 지원
- ◆ 회복적 생활교육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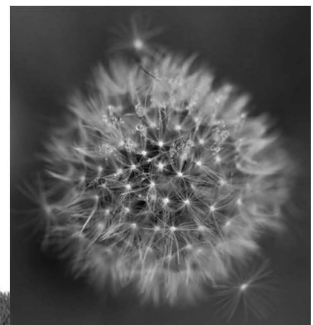
충북연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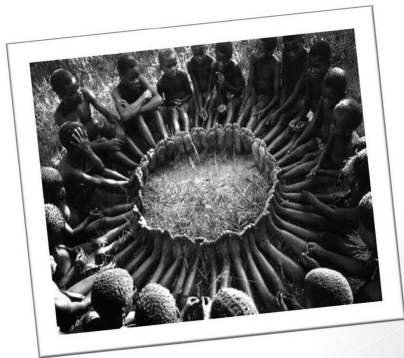
충북연구회 활동

회복의 씨앗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바람아, 불어라~





2.

회복적 생활교육 사례

운영 사례

서클로 여는 성장공동체(A중학교)

- ◆ 서클로 여는 아침 모임
 - 매일 아침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야기 나눔을 통해 기분과 상태, 경험 공유
 - 칭찬보따리로 격려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성장공동체 철학(A중학교)

은혜를 성장공동체 철학

나는 주위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배움의 씨앗을 심고 키워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배움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다른 곳 어디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눌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참된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영 사례

성장공동체 생활철학(A중학교)

- 나는 정직하겠습니다.(정직)
- 나는 내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나눔)
- 나는 내 할 일 다 하겠습니다.(의무)
- 나는 받기보다 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선행)
- 나는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보상/책임)
- 나는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긍정)
- 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주의)
- 나는 내 주위환경을 믿겠습니다.(신뢰)
- 나는 겉 모습보다 속 모습을 중요시 하겠습니다.(진심)
- 나는 내가 받는 것들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감사)
-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배려)
- 나는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감)
- 나는 요청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겠습니다.(숙고)
- 나는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 나만이 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서클로 여는 아침 모임(A중학교)

불편함을 넘고
이해의 시간을 건너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 ◆ 갈등 해결 주제 탐색 활동(자유학년제)
 - 1학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
 - 1학년 담임 모두가 마음을 맞춰 실천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 갈등 해결 주제 탐색 활동

- 서클로 모여 자신의 느낌과 욕구 표현
-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 이해하기



갈등 해결 질문으로 회복적 대화하기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 또래 조정 프로그램 (예정)

-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
- 갈등을 피하지 않는 학생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 ◆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독서토론
 - 서클 연습, 사례 나눔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 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갈등을 푸는 새로운 선택지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 자유학년제 [B중학교]

갈등이 생기면?

서클을 하자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존중으로 자라는 행복씨앗학교 [C중학교]

- ◆ 행복씨앗학교 5년차 학교 문화
 - 학생 존중, 선생님께 감사
 - 존중의 약속 실천
 - 처벌 보다는 회복을 중시하는 갈등 해결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존중으로 자라는 행복씨앗학교 [C중학교]

-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와 실천
 -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30시간)
 - 학생+담임 서클진행 연수(2학년 대상)
 - 학급에서 서클 적용 및 실천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존중으로 자라는 행복씨앗학교 [C중학교]

- ◆ 행복씨앗학교의 딜레마
 - 학폭 매뉴얼 VS 교사의 철학과 신념
 - 명확한 경계는?
 - 책임에 대한 두려움?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새로운 시도, 가야 할 길 [D중학교]

◆ 학년 2부장 체제

- 생활교육 부장, 교육과정 운영 부장
- 학년에서 함께 하는 생활교육
- 학년 간 협의.공유.역할 분담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관계의 디딤돌을 만드는 신뢰서클 [E고등학교]

◆ 담임과 함께 하는 신뢰서클

- 관계 형성 신뢰서클(학기초)
- 성찰을 위한 신뢰서클(학기말)
- 아이들을 살피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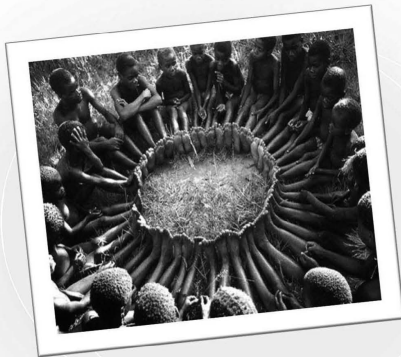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운영 사례

관계의 디딤돌을 만드는 신뢰서클 (E고등학교)

◆ 함께 하는 생활교육을 위한 고민

- 대입을 위한 교육 VS 아이들을 살피는 교육
- 무엇이 옳은가 VS 무엇이 소중한가
- 덜 경쟁적인 분위기와 학교문화



3.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공동체란?

**내가 가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를 메우더군요

- 파커 파머-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학교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곳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공동체”**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청소년기?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

- 삶 안에서 말하고 듣는 활동
- 또래를 통한 평화의 압력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어둠과 싸우는 대신
빛을 들여오기.

- 에크하르트 톨레 -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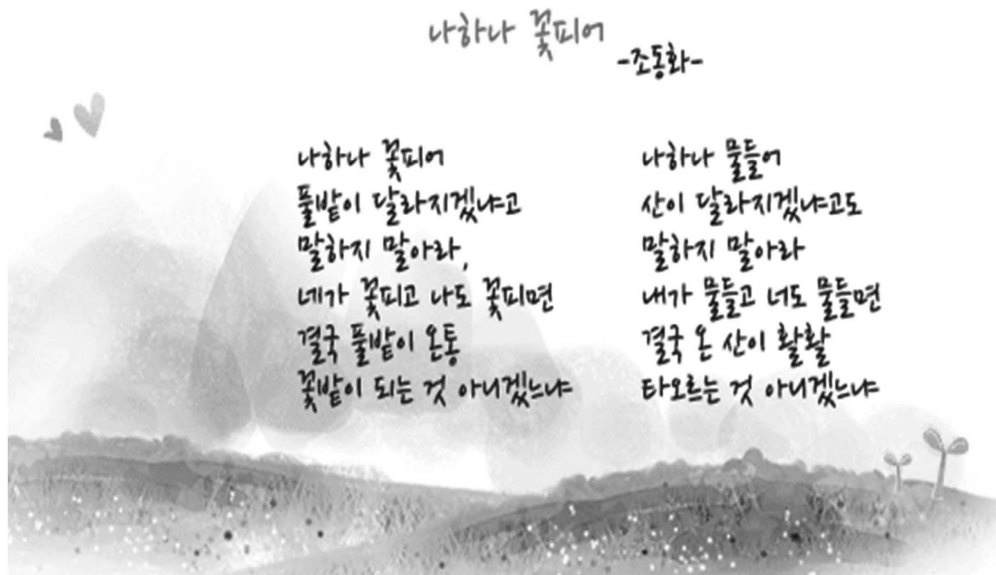
벌새 이야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개인의 실천을 넘어
학교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연대하는 힘.**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개최 계획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인 쇄 2019년 9월 26일 발행

발 행 2019년 9월 26일 인쇄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6/7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